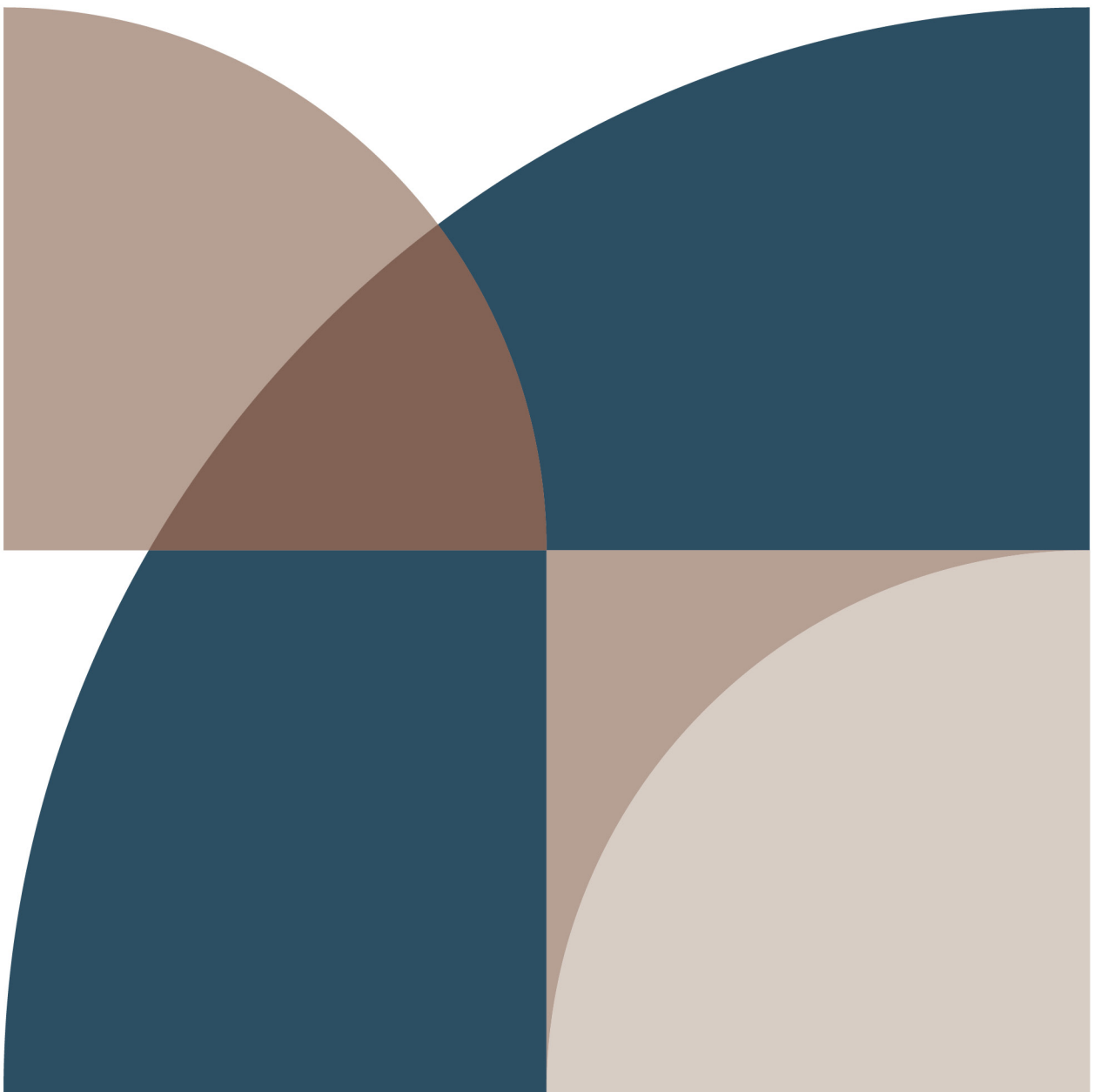


발간번호

GYSA-22-021

경상남도 청소년내담자  
성격유형분석을 통한  
**특성파악 및 효과적  
상담개입 연구**

2022. 12







경상남도 청소년내담자  
성격유형분석을 통한

# 특성파악 및 효과적 상담개입 연구

2022. 12

**책임연구원** : 송연주 교수 (동의대학교)

**공동연구원** : 전새미 (동의대학교)

조아영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본 보고서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경상남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연구요약

경상남도 청소년내담자 성격유형분석을 통한  
특성파악 및 효과적 상담개입 연구

## I. 연구개요

① 연구목적	환경에 따른 적응 양상은 개인이 가진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에 청소년의 성격과 이들이 호소하는 어려움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개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② 조사대상	경상남도 거주 만 9~18세 청소년 143명
③ 조사방법	경상남도 소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내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 실시
④ 조사기간	2022. 7. ~ 2022. 9. (약 3개월)
⑤ 조사내용	NEO 성격검사(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의 총 211문항 (초등학생의 경우 147문항, 호소문제 선택(3순위까지))

## II. 연구결과

### ① 성격 5요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내담자는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보다 개방성이 다소 높고, 신경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격 5요인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학교급의 경우 개방성에서만 중학생 내담자가 초등학생 내담자보다 더 높은 특성을 나타냈다. 다만, 신경증의 하위요인에서 특이성에 대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고등학생 내담자가 초등학생 내담자와 중학생 내담자보다 더 우울하고, 더 낮은 자존감을 나타냈다.

### ② 성격 5요인의 T-표준점수 분포에 따른 분석 결과

성격 5요인의 T-표준점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내담자들은 상당수가 평균 범위에 속해 있지만, 대체로 낮은 점수 범위에 많이 포함되었다.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낮은 점수에 더 많이 속했으며, 신경증에서는 남녀 학생 모두 높은 점수에 많이 속해 있었다. 학교급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 내담자는 개방성과 성실성의 가장 높은 점수 범위에 속하지 않았으며, 신경증의 가장 낮은 점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중·고등학생 내담자의 경우, 친화성과 성실성 모두 낮은 점수 범위에 더 많은 학생이 속해 있었는데, 특히 고등학생 내담자가 낮은 외향성과 높은 신경증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상담자는 무엇보다 청소년 내담자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또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신이 속한 가정이나 학교, 또래 집단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들의 성격적 특성을 바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연구 요약

경상남도 청소년내담자 성격유형분석을 통한  
특성파악 및 효과적 상담개입 연구

### ③ 청소년 내담자의 호소문제 분석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내담자는 친구관계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다음으로 가족문제, 학업스트레스, 성격, 인터넷/스마트폰 순으로 호소하였다. 1순위에서도 친구관계나 가족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어, 청소년 내담자들이 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내담자는 가족문제, 친구관계, 성격, 인터넷/스마트폰 순으로 선택하였는데, 1순위에서는 가족문제와 친구관계를 동일하게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내담자는 인터넷/스마트폰, 친구관계, 가족문제, 성격 순으로 호소하면서, 인터넷/스마트폰을 1순위로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고등학교 내담자는 학업스트레스, 진로탐색, 친구관계, 가족문제 순으로 호소하였는데, 1순위로 진로탐색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즉,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따라 이들이 호소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개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성격 5요인과 호소문제 분석 결과

초등학교 내담자와 중학생 내담자는 거의 모든 성격요인에서 자신의 성격을 호소문제로 선택하였고, 고등학교 내담자는 친화성이 낮은 경우에만 성격을 호소하고 있었다. 중학생 내담자는 모든 성격 요인에서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호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향성이 낮거나 친화성이 낮고, 신경증이 높은 중학생 내담자는 관계문제를 호소하였고, 개방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는 성격을 호소하였다. 고등학교 내담자의 경우, 초·중학생 내담자와 유사한 문제를 나타내었지만, 모든 성격 요인에서 학업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이 낮거나 신경증이 높은 청소년이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였다. 또한, 외향성이 낮거나 친화성이 낮은 고등학교 내담자 청소년 내담자는 진로탐색을 1순위로 호소하였다. 신경증이 높은 초, 중, 고등학교 내담자 모두 관계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1순위로 친구관계를 호소하였다.

### ⑤ 신경증의 하위요인과 호소문제 분석 결과

신경증의 하위요인인 불안, 우울, 자존감이 높은 경우에도 중학생 내담자는 인터넷/스마트폰을, 고등학교 내담자는 친구관계를 1순위로 호소하였다. 불안이 높은 중학생 내담자는 인터넷/스마트폰과 함께 친구관계를 호소하였고, 불안과 우울, 자존감이 높은 고등학교 내담자 모두 친구관계를 1순위로 호소하였다. 고등학교 내담자의 경우, 비록 학업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으나, 학업을 1순위로 선택하지 않았다. 상담자는 이러한 불안, 우울, 자존감의 특성과 학교급에 따른 문제 유형 역시 패턴화하여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I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은 각각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담을 받으러 센터에 내방하였다. 이에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문제 패턴을 분류하고 유사한 문제에 대한 양상을 고려한 개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내담자의 성격적 특성은 일반 청소년이 나타내는 성격적 특성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구대상의 수에서 기인했을 수 있으나, 청소년 내담자가 지닌 특성을 반영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내방하는 청소년을 상담할 시, 자신의 성격을 토대로 자신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변화와 성장을 도모해나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내담자는 가족, 친구 등의 관계 문제를 주로 호소하였다. 특히 우울이나 불안, 자존감 등의 신경증이 높을수록 관계 문제를 더욱 호소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내담자의 관계적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자신을 가치있게 여김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도 개선해나갈 수 있는 교육 및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호소문제를 순위를 매겨 선택하게 하였지만, 호소문제 간의 관련성과 세부적인 어려움을 알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청소년 내담자가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 내담자가 관계 문제를 호소한다면,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와의 라포형성도 어려울 수 있다. 상담자는 청소년 내담자와 협력적 관계를 맺으며 조력자로 인식할 수 있게끔 충분히 지지하고 존중하는 반응을 일관되게 해줌과 동시에 내담자의 성격특성을 토대로 이들이 지닌 특성을 지속적으로 탐색해나가는 개입 방향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의 성격적 요인은 타고난 기질일 수 있으나 가정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거나 부모와의 강한 의사소통 경험의 부족으로 기인했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내담자의 개인적 요인을 다뤄줌과 동시에 부모나 가족 등 환경에 개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 Contents

## 목 차

### I. 연구 개요

1. 연구목적	14
2.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15
3. 측정도구	16
4. 자료분석	18

### II. 청소년 성격특성과 상담 개입

1. 청소년의 성격특성	20
2. 청소년의 성격특성에 따른 어려움	24
3. 청소년을 위한 상담 개입	27

### III. 연구 결과

1. 성격 5요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38
2. 성격 5요인의 T-표준점수 분포에 따른 분석 결과	43
3. 청소년 내담자의 호소문제 분석 결과	47
4. 성격 5요인과 호소문제 분석 결과	52
5. 신경증의 하위요인과 호소문제 분석 결과	68



## IV. 주요 결과에 따른 논의

- 1. 청소년 내담자의 성격특성 분석에 따른 논의 ..... 76
- 2. 청소년 내담자의 호소문제 분석에 따른 논의 ..... 78
- 3. 청소년 내담자의 성격특성과 호소문제에 따른 논의 ..... 80

## V. 결론 및 제언

- 결론 및 제언 ..... 86
- 참고문헌 ..... 88

## [부록] 연구참여동의서

- 연구참여동의서 ..... 94



# 표 목차

<표 I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15
<표 I -2>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	16
<표 I -3> NEO 성격검사 요인구조 .....	17
<표 I -4> 호소문제 내용 .....	18
<표 II -1>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	20
<표 II -2> 스마트폰 중독을 위한 개인상담 프로그램 세부 내용 .....	28
<표 II -3> 진로의사결정수준에 따른 내담자 유형, 상담목표 및 개입 방안 .....	31
<표 II -4>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진로대안 탐색을 위한 실행방안 .....	34
<표 III -1> 성격 5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	38
<표 III -2> 성별에 따른 성격 5요인 차이 .....	38
<표 III -3> 학교급에 따른 성격 5요인 차이 .....	39
<표 III -4> 성별에 따른 신경증 하위요인 차이 .....	40
<표 III -5>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신경증 하위요인 차이 .....	42
<표 III -6> NEO 성격검사 프로파일 해석 분류표 .....	44
<표 III -7> 성별에 따른 성격 5요인의 T-표준점수 분포 .....	45
<표 III -8> 성별에 따른 성격 5요인의 T-표준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	45
<표 III -9> 학교급에 따른 성격 5요인의 T-표준점수 분포 .....	46
<표 III -10> 학교급에 따른 성격 5요인의 T-표준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	46
<표 III -11> 순위별 청소년 내담자의 호소문제 .....	47
<표 III -12> 초등학교 내담자의 호소문제 .....	48
<표 III -13>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	50
<표 III -14> 고등학교 내담자의 호소문제 .....	51
<표 III -15> 외향성이 낮은 초등학교 내담자의 호소문제 .....	52
<표 III -16> 개방성이 낮은 초등학교 내담자의 호소문제 .....	53
<표 III -17> 친화성이 낮은 초등학교 내담자의 호소문제 .....	54
<표 III -18> 성실성이 낮은 초등학교 내담자의 호소문제 .....	55
<표 III -19> 신경증이 높은 초등학교 내담자의 호소문제 .....	56
<표 III -20> 외향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	58
<표 III -21> 개방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	59
<표 III -22> 친화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	60
<표 III -23> 성실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	61

<표 III-24> 신경증이 높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	62
<표 III-25> 외향성이 낮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	63
<표 III-26> 개방성이 낮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	64
<표 III-27> 친화성이 낮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	65
<표 III-28> 성실성이 낮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	66
<표 III-29> 신경증이 높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	67
<표 III-30> 신경증이 높은 중·고등학생 내담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	68
<표 III-31> 신경증이 높은 중·고등학생 내담자의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	68
<표 III-32> 불안이 높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	69
<표 III-33> 불안이 높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	70
<표 III-34> 우울이 높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	71
<표 III-35> 우울이 높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	72
<표 III-36> 자존감이 높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	73
<표 III-37> 자존감이 높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	74
<표 IV-1> 청소년 내담자의 성격특성과 호소문제 .....	80
<표 IV-2> 불안, 우울, 자존감이 높은 중·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	83

# 그림 목차

[그림 II-1]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진로상담 절차.....	33
[그림 III-1] 성별에 따른 성격5요인 차이.....	39
[그림 III-2] 학교급에 따른 성격 5요인 차이.....	40
[그림 III-3] 성별에 따른 신경증 하위요인 차이.....	41
[그림 III-4] 학교급에 따른 신경증 하위요인 차이.....	42
[그림 III-5] 중·고등학생의 신경증 하위요인 차이.....	43
[그림 III-6] T-표준점수 범위와 백분위 점수.....	44
[그림 III-7] 청소년 내담자의 호소문제.....	48
[그림 III-8] 초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49
[그림 III-9]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50
[그림 III-10]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51
[그림 III-11] 외향성이 낮은 초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53
[그림 III-12] 개방성이 낮은 초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54
[그림 III-13] 친화성이 낮은 초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55
[그림 III-14] 개방성이 낮은 초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56
[그림 III-15] 신경증이 높은 초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57
[그림 III-16] 외향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58
[그림 III-17] 개방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59
[그림 III-18] 친화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60
[그림 III-19] 성실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61
[그림 III-20] 신경증이 높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62
[그림 III-21] 외향성이 낮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63
[그림 III-22] 개방성이 낮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64
[그림 III-23] 친화성이 낮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65
[그림 III-24] 성실성이 낮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66
[그림 III-25] 신경증이 높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67
[그림 III-26] 신경증이 높은 중·고등학생 내담자의 하위요인 평균.....	68
[그림 III-27] 불안이 높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69
[그림 III-28] 불안이 높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70
[그림 III-29] 우울이 높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71
[그림 III-30] 우울이 높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72
[그림 III-31] 자손감이 높은 중·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73
[그림 III-32] 자손감이 높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74



# I.

# 연구 개요

1. 연구목적 .....	14
2.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	15
3. 측정도구 .....	16
4. 자료분석 .....	18



# I. 연구개요

## 1. 연구목적

동일한 환경에서도 어떤 이는 어려움을 겪지만, 어떤 이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나가는지는 개인이 가진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경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의사와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며 행동하는지는 개인의 고유한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환경에 적응하며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성격의 발달과정을 안다는 것은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일 수 있다.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틀이 사용되고 있지만,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틀로 성격 5요인 이론(The five factor model)을 들 수 있다. 성격 5요인은 외향성(Extraversion), 개방성(Openness),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신경증(Neuroticism)으로, 이러한 특성은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사고, 감정, 행동 방식에는 개인차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Costa & McCrae, 199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향성은 에너지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관심 정도를, 개방성은 새로운 자극에 대하여 얼마나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지를 보여주고, 친화성은 타인과의 조화롭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정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실성은 사회적 규범, 원칙과 같은 것을 지켜내려는 성향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신경증은 정서적 안정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격 5요인과 이들이 호소하는 어려움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을 더욱 깊이 이해함으로써, 청소년이 겪는 문제에 관한 개입 방안 및 예방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해본다.

## 2.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경상남도 소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협조하에,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내방 한 만 9~18세 청소년 총 143명이 참여하였다. 청소년의 참여는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 각 센터에 검사 진행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연구목적,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을 첨부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청소년은 NEO 성격검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참여동의서 내 방문 이유를 호소문제로 선택하게 하였다. 호소문제는 청소년으로부터 3순위까지 선택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참여자는 남학생 76명(52.82%), 여학생 67(47.18%)이었으며, 초등학교 35명(24.65%), 중학생 56명(39.44%), 고등학교 52명(35.92%)이었다. 참여한 청소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1>, <표 1-2>와 같다.

<표 1-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참여자 수	비율(%)
나이	만9~10세	19	13.38
	만11~15세	81	57.04
	만16~18세	43	29.58
학력	초등학교	35	24.65
	중학생	56	39.44
	고등학교	52	35.92
성별	남	76	52.82
	여	67	47.18
지역	거제	3	2.10
	거창	10	6.99
	경남	36	25.17
	고성	10	6.99
	김해	7	4.90
	남해	3	2.10
	마산	10	6.99
	밀양	10	6.99
	사천	9	6.29
	진해	3	2.10
	하동	14	9.79
	함안	10	6.99
	함양	8	5.59
	합천	10	6.99
	<b>합계</b>		<b>143</b>



# I. 연구개요

<표 1-2>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명(%)

	초3	초4	초5	초6	소계	중1	중2	중3	소계	고1	고2	고3	소계	총합
남		7 (4.9)	8 (5.6)	2 (1.4)	17 (11.9)	24 (16.8)	7 (4.9)	7 (4.9)	38 (26.6)	12 (8.4)	3 (2.1)	6 (4.2)	21 (14.7)	76 (53.1)
여	1 (0.7)	5 (3.5)	10 (7.0)	2 (1.4)	18 (12.6)	4 (2.8)	9 (6.3)	5 (3.5)	18 (12.6)	13 (9.1)	10 (7.0)	8 (5.6)	31 (21.7)	67 (46.9)
합	1 (0.7)	12 (8.4)	18 (12.6)	4 (2.8)	35 (24.5)	28 (19.6)	16 (11.2)	12 (8.4)	56 (39.2)	25 (17.5)	13 (9.1)	14 (9.8)	52 (36.4)	143 (100)

## 3. 측정도구

### 1) NEO 성격검사

청소년의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안현의와 안창규가 개발한 청소년 및 아동용 NEO 성격검사를 활용하였다. NEO 성격검사는 성격의 5요인 모형을 중심으로 개발된 검사로, 발달적 적응상의 문제에 기저 하는 기질적 성격 5요인 구조와 행동 장애 등의 예측과 예방적 지도 및 치료적 상담의 효율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척도는 5개의 요인, 외향성(사회성, 지배성, 자극추구성, 활동성), 개방성(창의성, 정서성, 사고유연성, 행동진취성), 친화성(온정성, 신뢰성, 공감성, 관용성), 성실성(유능감, 성취동기, 조직성, 책임감), 및 신경증(불안, 적대감, 우울, 충동성, 사회적위축, 정서충격, 심약, 특이성, 반사회성, 자손감)으로, 총 2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신뢰도 측정을 위한 두 개의 문항을 포함하여 총 2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초등학교생에게는 NEO 성격검사 아동용을 사용하였다. 아동용 성격검사는 성격 5요인의 축을 유지하면서 발달기적 행동특징을 반영하여 하위척도의 수를 조정함과 동시에 문항수를 축소하여 개발된 것으로, 총 1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용에는 5개의 요인, 외향성(사회성, 지배성, 활동성), 개방성(창의성, 정서성, 사고 유연성), 친화성(온정성, 신뢰성, 관용성), 성실성(유능감, 조직성, 책임감), 및 신경증(불안, 적대감, 우울, 충동성, 사회적 위축, 정서충격)으로, 총 1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용 성격검사 역시 신뢰도 측정을 위한 3개의 타당도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검사는 인사이트(<http://inpsy.co.kr>)를 통해 검사지 또는 온라인 코드를 활용하여 자기보고식 검사로 진행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의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NEO 성격검사의 요인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 -3> NEO 성격검사의 요인구조**

5요인		하위요인					
외향성 Extraversion	아동	사회성 (E1)	지배성 (E2)	자극추구 (E3)			
	청소년	사회성 (E1)	지배성 (E2)	자극추구 (E3)	활동성 (E4)		
개방성 Openness	아동	창의성 (O1)	정서성 (O2)	사고 유연성 (O3)			
	청소년	창의성 (O1)	정서성 (O2)	사고 유연성 (O3)	행동 진취성 (O4)		
친화성 Agreeableness	아동	온정성 (A1)	신뢰성 (A2)	관용성 (A3)			
	청소년	온정성 (A1)	신뢰성 (A2)	공감성 (A3)	관용성 (A4)		
성실성 Conscientiousness	아동	유능감 (C1)	조직성 (C3)	책임감 (C4)			
	청소년	유능감 (C1)	성취동기 (C2)	조직성 (C3)	책임감 (C4)		
신경증 Neuroticism	아동	불안 (N1)	적대감 (N2)	우울 (N3)	충동성 (N4)	사회적위축 (N5)	정서충격 (N6)
	청소년	불안 (N1)	적대감 (N2)	우울 (N3)	충동성 (N4)	사회적위축 (N5)	정서충격 (N6)
		심약 (N7)	특이성 (N8)	반사회성 (N9)	자손감 (N0)		



# I. 연구개요

## 2) 호소문제

청소년 내담자의 호소문제는 연구참여 동의서를 “어떠한 내용으로 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나요?”의 질문을 통해 선택하게 하였고, 선택사항이 많으면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청소년에게 선택하게 한 호소문제이다.

<표 1-4> 호소문제 내용

가족	가출	학교폭력	도박
음주	흡연	학업스트레스	학교생활부적응
등교거부	진로탐색	성격	친구관계
따돌림	이성교제	주의산만/과잉행동	우울/위축
자살	충동(분노)조절	반항성/품행성	성지식부족
성폭력	성충동/성욕구	인터넷/스마트폰	약물오남용
기타( )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성별, 학교급별 성격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독립표본 t검증 및 일원배치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청소년 성격특성과 상담 개입

1. 청소년의 성격특성 .....	20
2. 청소년의 성격특성에 따른 어려움 .....	24
3. 청소년을 위한 상담 개입 .....	27



## II. 청소년 성격특성과 상담 개입

### 1. 청소년의 성격특성

#### 1) 청소년의 정의

'청소년' 시기 및 정의는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 사이의 과도기적 존재로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인 면에 미성숙에서 성숙의 상태로 발달되어 가는 과정에 속해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유아기, 아동기, 성인기, 노년기와는 구별되는 독특성을 지니며,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둘째, 청소년은 단순히 1318세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되며,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지칭한다. 셋째, 청소년은 생식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소년 혹은 소녀와는 구별되며,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인간으로서의 인격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이다(오윤선, 김미숙, 2019).

#### 2)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발달을 경험하며 다양한 심리적 변화 및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다음은 각 영역별 발달 및 심리적 변화에 대해 정리한 표이다(오윤선, 김미숙, 2019).

<표 II-1>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발달 영역	시기적 특성
생물학적 발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장과 체중의 성장</li> <li>2. 운동능력의 발달</li> <li>3. 호르몬의 변화</li> <li>4. 2차 성징과 성적 성숙</li> </ol>
인지적 발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능성 및 추상적, 논리적 추론 가능</li> <li>2. 초인지적 이해 능력 함양</li> <li>3. 자기중심적 사고(개인적 우화, 상상속 청중)</li> <li>4. 상대적 사고</li> <li>5. 조망능력의 발달</li> <li>6. 사회인지의 발달(타인에 대한 판단, 사회적 조망획득)</li> </ol>
정서적 발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충동적이고 쉽게 동요하는 속성</li> <li>2. 정서적, 사회적 독립성의 발달</li> <li>3. 감각추구 경향</li> <li>4. 정서의 내면화</li> </ol>
사회적 발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적 관계의 확대</li> <li>2. 개인적, 사회적 부적응 현상 발생</li> <li>3. 상호유대감에 대한 욕구 증진</li> </ol>

### 3) 성격특성

#### (1) 성격의 정의

성격 역시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성격을 정의할 때면 공통적으로 시간과 상황에 따른 지속성, 다른 사람과 구별해주는 독특성, 사회 내 개인의 태도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성격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일관되고 독특한 행동 패턴을 의미한다.

Allport(1937)는 성격을 환경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적응을 결정하는 개인 내 체계들의 역동적 조직으로 정의하였다. 즉, 개인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보다는 형성된 성격이 어떻게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더 중점을 둔 것이다. 이에 성격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

#### (2) 성격 발달 이론: Big Five 이론

많은 연구자는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면서 개인차를 설명해 주는 성격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왔다. 이후 Goldberg는 자신의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재검토하여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성격의 다섯 가지 요인을 밝혀내고 있음을 주장하게 되었고, 이를 'Big Five'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성격특성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외향성(Extraversion), 개방성(Openness),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신경증(Neuroticism)의 5개 요인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특성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사고방식, 감정, 행동 방식에는 개인차가 있다(Costa & McCrae, 1992).

성격은 타인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생각, 감정, 행동양식으로 다양한 상황과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개인의 삶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Big Five 성격 특성은 교육학 및 심리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특성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써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각 요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박일경 외, 2010; 장은지, 최은실, 2017).

##### 가. 외향성

외향성은 긍정적 정서, 활동성, 온정, 흥분추구, 군집성, 주장과 관련된 성격 특성을 의미한다(Costa & McCrae, 1992). 또한 외향성은 인간관계에서의 양적 측면과 강도를 의미하며, 타인과 관계 맺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하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를 뜻한다. 외향성이 높은 이들은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하며, 남과 잘 어울린다. 또한, 사회적 기술이 뛰어나고 자극적이고 모험적이며 활동적인 특성을 가진다. 특히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성향을 나타내 지도력을 발휘하고 싶어하고 다소 경쟁적일 수 있다. 반면, 외향성이 낮은 이들은 수줍음이 많고 소극적이며 조용한 특성을 나타낸다.



## II. 청소년 성격특성과 상담 개입

### 나. 개방성

개방성은 상상력, 가치 및 행동 개방성, 심미안, 지적 호기심, 감정 자각 등과 관련된 성격특성을 의미하며(Costa & McCrae, 1992),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변화와 다양성을 좋아하며, 대가나 보상이 없어도 호기심과 만족 그 자체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게 된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상상력이 높고, 창의적이며, 미적 감수성이 높아 섬세하고 깊은 감정을 느낀다. 이들은 특이하고 낯선 것에 열린 태도를 지니고 있어 다양한 직업적 흥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지적 호기심이 강하며, 새로운 변화와 개선을 시도하려 한다. 반면,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관념적인 것을 싫어하는 성향을 나타내며, 특히 습관적이고 일상적이어서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개방성 요인은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가정환경이나 교육, 사회문화적 특성 등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다. 친화성

친화성이란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도로, 신뢰, 겸손, 솔직, 순응, 온유, 이타성과 관련된 성격특성을 의미한다(Costa & McCrae, 1992). 일반적으로 외향성과 함께 타인지향적 양상인 대인관계와 관련된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외향성이 대인관계의 양적 측면이라면 친화성은 질적 측면으로, 친화성이 높은 이들은 예의가 바르고, 협조적이며, 양보심과 인내심이 클 뿐만 아니라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등 이타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반면, 친화성이 낮은 사람은 차갑고, 냉소적이며, 다소 적대적일 수 있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공격적이고 고집이 센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친화성이 매우 낮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관련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충족되지 않은 관계의 욕구가 높음을 반영할 수도 있다.

### 라. 성실성

성실성이란 조직적이고 계획하는 능력인 유능감과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능성, 자기절제, 질서, 성취추구, 충실성, 신중성과 관련된 성격특성을 의미한다(Costa & McCrae, 1992). 성실성이 높은 이들은 열심히 일하고, 신중하며, 일의 성취 욕구가 강하고 포부 수준도 높다. 또한, 책임감이 강하고, 정리 정돈된 생활을 잘 유지하며 계획성이 있게 행동하는 등 일관성이 있으며, 원리와 원칙을 준수하려는 성향을 나타낸다. 즉, 높은 성실성은 미래에 대한 장기 계획, 잘 조직된 지지 기반을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성실성이 낮은 이들은 쉽게 마음이 분산되고, 조직화 되어 있지 않아서 신뢰하기 어려우며, 목적 없이 되는 대로의 행동으로 쉽게 포기하는 등의 특성을 나타낸다.

### 마. 신경증

신경증이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적응 정도와 쉽게 우울해하거나 화를 잘 내는 등의 정서적 불안정성이나 부적응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며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 신경증이 높은 이들은 걱정이 많고, 과민하며, 인내심이 부족하며, 불안하고, 우울하고, 번덕이 심하고, 까다롭고, 화를 잘 내게 된다. 높은 신경증은 다소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자 공격적인 행동을 표하기도 하며,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한다. 반면, 신경증이 낮은 이들은 편안하고, 침착하며, 자제력과 인내심을 나타내게 되고, 위기에도 잘 대처할 수 있다. 신경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이 있다.

### (3) 청소년의 성격특성

선행연구들은 성별에 따라 성격 5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Klimstra 등(2009)의 연구에 의하면, 개방성은 청소년기 동안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증가하지만,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실성은 감소하나, 외향성은 증가하였지만, 여자 청소년에게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친화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면서 특히 남자 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나 남녀 간 차이가 줄어들었으며, 신경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녀 간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 신경증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Borroni et al., 2014; Vecchione et al., 2012).

국내의 경우, 안창규와 채준호(1997)에 의하면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신경증과 개방성이 낮았으며, 고등학생 또한 외향성을 제외한 다른 요인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발달 경향을 살펴보면, 성실성을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신경증은 나이가 들수록 차츰 낮아졌고, 외향성과 개방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나 친화성과 성실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지와 최은실(2017)에 의하면,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요인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신경증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우호성의 성별의 차이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특히 남자가 여자보다 신경증이 모두 높았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중학교 1·2학년 때는 개방성·우호성이 낮고 외향성과 신경증이 높으며, 이러한 현상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점차 안정적으로 이동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개방성과 친화성이 가장 높고 신경증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다, 고등학교 2·3학년이 되면서 신경증이 높아지고 외향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 2학년 시기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이 낮고, 신경증이 높게 나타났으나, 여학생은 중학교 시기 성실성과 외향성이 높으나 고등 2·3학년이 되면서 친화성과 더불어 확연히 떨어진 후 신경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 청소년 성격특성과 상담 개입

### 2. 청소년 성격특성에 따른 어려움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성격이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적응 등의 삶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먼저, 성격은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정서 등에 영향을 미친다(Lampropoulou, 2018; Weber & Huebner, 2015). 아동기 외상 경험은 외향성과 신경증적인 성격과 함께 우울을 야기하고(Zhang et al., 2018, 청소년의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은 주관적 안녕감의 긍정적 측면인 만족감에, 친화성과 신경증은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적 측면인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ampropoulou, 2018).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eber & Huebner, 2015). 아울러, 성실성은 신경증과 함께 학업지연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개방성과 더불어 탈진, 냉담, 그리고 학업 무능 등의 학업소진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은비 외, 2013).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신경증은 부정적인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외향성과 친화성은 긍정적인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eNeve & Cooper, 1998). 성격은 학교적응의 중요한 측면인 학업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다. 개방성, 외향성, 성실성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적응과 정적인 관련이 있으며, 신경증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적응은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bood et al., 2020). 또한, 개방성, 성실성은 학업적 실패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경증은 학업적 실패내성에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효식, 연은모, 2022).

성격특성은 스마트폰 사용이나 게임과몰입과도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신경증과 외향성은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정적 관련이 있으며, 친화성과 성실성은 부적 관련이 나타났다(Gao et al., 2020).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보고되었다(Zhou et al., 2017). 또한, 성격특성에 따라 게임동기에도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외향성, 친화성, 개방성, 신경증이 높은 반면, 성취감을 얻기 위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외향성과 신경증은 높지만, 친화성과 성실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Graham & Gosling, 2013). 성별에 따른 차이도 보고되고 있는데, 여학생의 경우 친화성, 성실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부적 영향을, 신경증은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남학생의 경우 친화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rpaci & Unver, 2020).

이상과 같이 청소년은 성격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각 성격요인별 특성과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외향적 성격특성과 어려움**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거나 타인을 주도하려는 특성인 외향성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으며(오현정, 2018), 학교에도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영란, 2005). 외향성은 자존감과 안녕감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Vazsonyi et al., 2015).

**2) 개방적 성격특성과 어려움**

지적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적응하는 특성인 개방성은 성취욕구와 관련이 있다(정은정 외, 2014). 개방성은 낮은 자존감과도 부적의 관련이 있었으며(Vazsonyi et al., 2015), 성실성과 더불어 학교수업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조영란, 2005).

**3) 친화적 성격특성과 어려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타인에게 관심이 많은 성격특성인 친화성이 높을수록 SNS를 오락적 동기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은정 외, 2014). 친화성이 낮을수록 반사회적 행동 및 공격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Jones et al., 2011), 친화성은 낮은 안녕감과 부적 관련이 있었다(Vazsonyi et al., 2015). 친화성은 특히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가능성과 관련이 높으며, 친화성이 높은 이들은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ov et al., 2016).

친화성은 외향성과 함께 게임과몰입에 부적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친화성이 대인관계와 관련이 높다는 점과 그 맥을 함께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과 맞는 상황을 선택하게 되는데, 외향적이면서 친화적인 이들은 실제 삶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게임과몰입에는 보호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연은모, 최효식, 2022).

**4) 성실한 성격특성과 어려움**

성실성은 학업 수행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이며(O'Connor & Paunonen, 2007), 인지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성실성은 학업수행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mmadov, 2022). 성실성은 학업성취, 진로 적응성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Vashisht et al., 2021), 성실한 사람일수록 과제에 대한 조직력 및 성취욕구가 높아 효과적으로 자기조절학습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한윤영, 2003), 자기통제력이 높고(연은모, 최효식, 2022), 가정생활에서의 적응력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전혜경, 2007). 이렇듯 개인의 성실한 성격 특성이 높은 적응력 및 조절력과 관련되어 있어 학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소진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경일 외, 2010). 이 외에도 성실성 특성이 우세할수록 SNS를 정보획득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정은정 외, 2014).



## II. 청소년 성격특성과 상담 개입

### 5)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어려움

신경증은 청소년의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Vazsonyi et al., 2015), 특히 신경증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ajkovic et al., 2018). 성격은 동일한 상황을 다르게 지각하게 하는데,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동일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Bolger & Schilling, 1991).

선행연구들은 신경증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선종, 2013; 조수연, 안귀여루, 2018; 최은실, 2011). COVID-19 상황에서 성격 5요인은 부적응적 인지를 매개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ian et al., 2021), 신경증적 성향이 높을수록 SNS를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은정 외, 2014).

높은 신경증적 성향은 특히 관계에서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증이 높은 이들은 불안정한 정서적 특성으로 관계에서의 실패 경험이 잦은데, 이는 자존감을 더욱 낮추고, 좌절감이나 분노 등의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하며, 이로 인한 자신들의 취약한 자존감을 친밀한 관계를 통해 보상받으려 하면서 관계에 더욱 매달리고 집착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송연주, 하문선, 2021). 신경증이 높은 이들은 부정적 정서를 더 오래 경험하며, 부정적 정서에 압도될 가능성이 높는데(John & Gross, 2004), 이럴수록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김수안, 민경환, 2006), 타인으로부터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는 등의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 사용이 쉽지 않게 된다(Cole et al., 2009). 또한, 이들은 부정적인 정서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서 우울의 수준과 강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성정혜, 김춘경, 2018).

신경증은 특히 우울 및 자살의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추보경, 2019). 한 연구에 의하면, 자살 증상군에서 자존감, 불안, 적대감, 우울, 위축감, 특이성 등의 신경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최용락 외 2019).

### 3. 청소년을 위한 상담 개입

#### 1) 학업상의 어려움

학습이란 학업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취하는 것으로, 개인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학습상담은 좁게는 학업성취도를 향상하는 것, 즉 학업상담에서부터 넓게는 자기주도적으로 과업을 성취하도록 돕는 과정이 포함된다.

학습상담의 과정은 크게 상담관계 형성 및 구조화, 학습 문제의 진단, 상담 목표의 설정, 개입 전략 설정 및 개입, 사례관리로 나눌 수 있다. 학습상담은 부모, 교사 등 타의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시작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담자의 상담 동기는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원활한 상담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내담자의 불만을 수용하고 학습과 관련한 갈등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해 공감적인 반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정과 사랑에 대한 욕구를 읽고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시켜 자발성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다. 보통 부모는 성적 향상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상담에 임하는 경향이 있기에, 학부모 상담 시, 학부모와 상담을 함께 구조화하여 각자의 역할과 관계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학습상담 시, 문제의 원인 및 심각도에 따라 개인의 내적요인인지 환경요인인지를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환경적 요인의 비중이 큰 경우 가족상담이나 부모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적인 요인 중 인지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면 학습 결손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 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지적 요인의 경우 단기기간의 변화가 어려움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개입하고, 정서적 요인의 경우, 수치심과 좌절감, 분노 등에 공감적으로 반응하여 원인을 자신(행동, 학습방법 등)에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개입의 최종 성과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으로 학습 행동에 초점을 두고 개입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습상담은 상담 목표 달성 후 곧바로 종결하기보다는 상담 간격을 서서히 늘려가며 변화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황매향, 2008).

#### 2) SNS/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한 상담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수 있다. 먼저 변화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정도를 평가하게 한다.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일과표를 통해 가시화시킬 수도 있고, 자신이 중독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를 찾아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의 해로움을 알게 함으로써 인식적 차원에서 스마트폰 사용의 유해함을 인식하게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내담자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변화 동기를 함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신의 변화에 있어서 주변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탐색하게 하여, 주변의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의 조절능력을 함양하게 돕는 것인데, 이는 정서조절 방법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안 활동을 알려주어 내담자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신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마음과 욕구를 확인함으로써 자기를 이해하도록 하거나, 스트레스원을 파악하여 자신을 이해함과 동시



## II. 청소년 성격특성과 상담 개입

에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탐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는 자신이 가진 비전과 목표,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건강한 방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외에도, 관계성을 증진하여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 자신의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내담자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좀 더 건강한 의사소통 방식 및 관계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게 된다. 내담자가 실제로 스마트폰 없는 하루를 상상하도록 하고 실제 성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자와 함께 활동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개인상담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이다(여성가족부, 2013).

<표 II-2> 스마트폰 중독을 위한 개인상담 프로그램 세부 내용

발달 영역	시기적 특성			
자기 결정 초기 평가	1 회 기	나는 어디에 있는가? (자기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결정을 위한 자기 평가</li> <li>• 자기결정을 위한 상담구조화</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마트폰 중독 척도 실시하기</li> <li>2)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사용 돌아보기</li> <li>3) 상담에 대한 규칙설명하기</li> </ol>
	2 회 기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결정을 위한 변화 동기 촉진</li> <li>•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 인식</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정도 확인하기</li> <li>2) 스마트폰 중독 동영상 시청</li> <li>3)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확인하기</li> <li>4) 스마트폰 중독 피해를 자신에게 적용하기</li> </ol>
자기 결정 변화 동기 유발	3 회 기	스마트폰과 나 (자기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결정을 위한 자기인식 증진</li> <li>• 스마트폰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확인</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알기</li> <li>2)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알기</li> <li>3)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양가 감정 깨닫기</li> <li>4) 스마트폰 사용 점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li> </ol>
	4 회 기	스마트폰 어떻게 해야 하나? (자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결정을 위한 감정인식</li> <li>• 스마트폰 변화의 욕구 촉진</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플을 통한 스마트폰 사용 확인하기</li> <li>2) 이모티콘 카드를 이용해 감정 찾기</li> <li>3) 내 마음과 스마트폰 사용 관련성 확인하기</li> <li>4) 스마트폰 사용 계획하기</li> </ol>
자기 결정 변화 동기 강화	5 회 기	스마트폰의 유혹 (갈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결정을 위한 갈망인식</li> <li>• 스마트폰 갈망감소 훈련</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마트폰 사용 목표 실천여부 확인 및 재계획하기</li> <li>2) 스마트폰으로 인한 유혹 상황을 다루기</li> <li>3) 갈망을 명상법으로 다루기</li> <li>4) 유혹 상황을 명상법으로 대처하는 훈련하기</li> </ol>

	6 회 기	스마트폰과 스트레스 (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결정을 위한 스트레스 요인 인식</li> <li>• 스마트폰 관련 스트레스 대처 훈련</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마트폰 사용 목표 실천여부 확인 및 재계획하기</li> <li>2) 스트레스의 영향 동영상 시청하기</li> <li>3) 나의 주요 스트레스 원과 대처 방식</li> <li>4) 건강하고 새로운 대처법으로 수정하기</li> </ol>
	7 회 기	스마트폰과 친구 (관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결정을 위한 관계성 증진</li> <li>• 스마트폰 관련 대인관계 대처 훈련</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마트폰 사용 목표 실천여부 확인 및 재계획하기</li> <li>2) 친구에 대한 생각 말하기</li> <li>3) 스마트폰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li> <li>4) 스마트폰으로 인한 대인관계 어려움에 대한 건강한 대처방법 연습하기</li> </ol>
자기 결정 변화 행동 실천	8 회 기	스마트폰 없는 세상 (대안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결정을 위한 유능감 촉진</li> <li>• 스마트폰 대안행동 실행</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마트폰 사용 목표 실천 여부 확인하기</li> <li>2) 즐거웠던 경험을 떠올리기</li> <li>3) 심심하고 지루할 때 했던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활동 목록 만들기</li> <li>4) 스마트폰 없는 하루를 상상하기</li> <li>5) 스마트폰 사용 계획세우기</li> </ol>
	9 회 기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 (유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결정을 위한 유능감 경험</li> <li>• 스마트폰 대처 행동 탐색 및 강화</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마트폰 사용 목표 실천여부 확인하기</li> <li>2) 지금까지 상담내용 정리하고 평가하기</li> <li>3) 스마트폰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재확인하기</li> <li>4) 재발위험이 높은 상황 확인하고 대처행동 정하기</li> </ol>
자기 결정 확인 평가 & 행동 실천	10 회 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자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결정을 위한 자율성 함양</li> <li>• 스마트폰 규칙을 통한 자기조절 능력 함양</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마트폰 사용 목표 실천여부 확인하기</li> <li>2) 스마트폰 사전, 사후 평가척도 실시하기</li> <li>3) 스마트폰 사용 척도를 통한 변화의 전도를 확인하기</li> <li>4) 나만의 스마트폰 가이드라인 만들기</li> <li>5) 나에게 편지쓰기</li> </ol>



## II. 청소년 성격특성과 상담 개입

### 4) 관계적인 어려움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방법은 크게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증진 방안과 대인관계 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 우선,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증진을 위해 대인관계 자신감을 향상하고 의사소통 기술 및 방법을 안내하고, 다음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권유하고 관계 경험을 촉진시킨다.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크게는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확인하고 지금까지의 대처 방식을 파악한다. 그런 다음,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앞으로의 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탐색해보고, 안전한 상황인 상담 공간에서 대인관계형성을 연습해본 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해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더불어, 의사소통 기술과 방법을 안내해줄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힘들었던 경험, 의사소통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개선 방법을 함께 살펴본다. 그런 다음,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실제적인 기술에 대해 훈련하여 실제 친구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형성을 권유하고 동아리 등의 활동을 경험하게 한다. 대인관계 상태나 어려움을 확인한 후, 친구들과 어울리면 좋은 점,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한 방법을 추천하여 대인관계 동기를 부여한다.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탐색한다. 내담자의 대인관계 선호방식이 파악되면 동아리나 멘토-멘티 활동과 같이 대인관계를 실천할 수 있는 장을 탐색하여 추천해주고, 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 5) 진로상담

진로상담은 자신이 당면한 진로문제를 해결하여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만나 상호작용하는 전문적 도움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진로발달을 촉진하거나 진로계획, 진로-직업의 선택과 결정, 실천, 직업적응, 진로변경 등의 과정을 돕게 된다. 학교급별 진로상담의 특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진로인식의 단계로 자신과 일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가치를 형성하고 다양한 꿈을 찾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배양한다면, 중학교에서는 진로 탐색단계로, 초등학교의 진로인식을 기초로 다양한 직업세계와 교육기회를 탐색하여 중학교 생활 및 이후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게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설계단계로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정보탐색을 통해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게 한다(김지연 외, 2022).

진로상담은 기존의 사례개념화에 추가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이론적 지식이 더 필요하다. 진로와 관련된 지식을 활용해서 내담자에게 자원을 제공하여 진로발달을 촉진하고 직업선택과 적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력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와 관련된 정서와 신념을 개입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 진로영역 뿐만 아니라 기타 심리적 문제를 함께 다루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진로상담에서는 진로 준비 행동을 다양하게 수행하도록 촉진해야 하며, 진로발달을 단계적으로 성취하거나 진학, 취업과 같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진로상담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내담자와의 관계를 형성한 다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파악한다. 진로문제의 유무, 진로문제에서 진로결정의 명료성, 진로계획의 적절성, 진로행동의 진척성을 탐색하고,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정교화하며, 의사결정수준에 따라 내담자유형을 분류한다. 다음으로 내담자에 대해 수집된 정보를 통합하여 상담목표를 수립하고, 문제의 원인과 목표에 따라 개입 방안을 수립한다. 개입을 수행해가면서 대안 계획을 세우는 것도 성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상담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해서 마무리한다. 다음의 <표 II-3>은 진로의사결정수준에 따른 내담자 유형과 그에 따른 상담목표 및 개입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김봉환, 2019).

<표 II-3> 진로의사결정수준에 따른 내담자 유형, 상담목표 및 개입 방안

	내담자 유형	상담목표	개입 방안
진로 결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선택이 잘 된 것인지 명료화하기를 원하는 내담자</li> <li>• 자신의 선택을 이행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li> <li>• 진로의사가 결정된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로는 결정하지 못하는 내담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과정 탐색</li> <li>• 진로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li> <li>• 합리적인 과정으로 명백하게 내린 결정인지 확인</li> <li>• 결정된 진로목표를 위해 실행계획을 세워 실천 돕기</li> <li>• 내담자의 잠재된 가능성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결정 구체화를 위한 현장 견학이나 실습 기회 수립</li> <li>• 목표를 향한 구체적 정보 수립 및 실천방안 모색</li> <li>• 결정된 진로 재확인 및 직업 탐색</li> <li>• 결정된 진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 조력</li> </ul>
진로 미 결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이해, 직업정보 혹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내담자</li> <li>• 다양한 적성으로 지나치게 많은 기회를 갖게 되어 진로결정이 어려운 내담자</li> <li>• 진로결정을 하지 못하지만 성격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내담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 탐색</li> <li>• 구체적인 직업정보 활용</li> <li>• 현재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 파악</li> <li>• 자기이해를 위한 탐색</li> <li>• 직업정보 제공</li> <li>• 의사결정 과정 연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결정 부족 원인 파악</li> <li>• 체계적인 개인상담과의 병행</li> <li>• 자기이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진로결정 범위 축소</li> <li>• 진로결정의 필요성 인식</li> <li>• 진로의사결정 기술 습득</li> </ul>
우유부 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에 전반적인 장애를 주는 불안을 동반한 내담자</li> <li>• 일반적으로 문제해결 과정에서 부적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내담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안이나 우울 감소</li> <li>• 불확실감 감소</li> <li>• 동기 개발</li> <li>• 기본적인 생활습관 변화</li> <li>• 긍정적인 자기개념 확립 및 자존감 회복, 자아정체감 형성</li> <li>• 타인의 평가에 대한 지나친 민감성 극복</li> <li>• 열등감 완화</li> <li>• 가족의 기대와 내담자의 바람 간 차이 인정, 가족갈등 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구조화적 개입(지지적 상담)</li> <li>• 문제와 관련된 심리적 어려움을 다루기 위한 심리상담 실시</li> <li>• 진로계획을 위한 내담자 동기 촉진</li> <li>•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개념 변화</li> <li>• 내담자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방법에 초점을 두고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 탐색 및 제거</li> </ul>



## II. 청소년 성격특성과 상담 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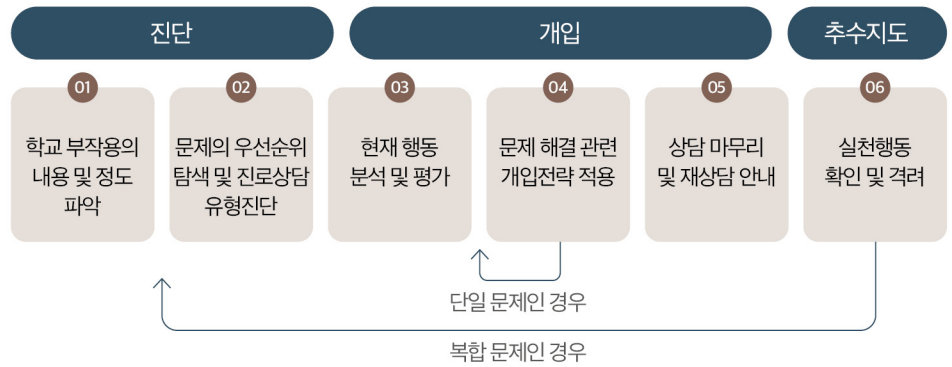
### (1)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진로상담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학업·직업형으로, 학교교육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이 자신의 수준에 비해 과도하거나 미달하여 부적응을 경험하는 경우로, 학력이 부진하거나 유예한 청소년, 우수한 학업능력을 지닌 청소년, 학업성취 저하를 겪는 청소년, 학과, 계열에 불만족하는 청소년, 준비하던 진로를 중단하거나 조기에 직업생활로 진입을 원하는 청소년 등이 이 유형에 속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신체·정서형으로, 사춘기 호르몬의 변화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 수준이 저하되었거나 장애를 지닌 청소년, 부정적 자아개념을 지닌 청소년, 생활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교육제도에 저항감을 가진 청소년, 비행 및 일탈 행위를 하는 청소년이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 대인관계형은 교사, 친구, 선·후배 등 학교 내에서 접촉하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 또래에게서 소외, 고립되었거나 교사나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원만한 관계 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속한다. 마지막으로 가정·사회형은 보호자의 낮은 관심이나 학대, 방임 등으로 학교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활동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로, 무연고 청소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집착하는 청소년,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속한다.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진로상담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학교부적응의 원인이 개인 내부의 요인에 의한 것인지,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분한다. 학교부적응의 원인이 개인요인인 경우, 심리, 정서, 행동 개선을 위한 다양한 처치를 통해 좀 더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반면, 학교부적응의 원인이 환경적 요인인 경우,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지원이 동반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진로교육과의 병행 가능성 여부에 따라, 직접적 개입요인과 간접적 개입요인으로 구분된다. 진로교육과의 병행 가능성이 클 경우, 진로정보 탐색, 진로체험, 진로의사결정 등 다양한 진로교육 방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진로교육과의 병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일차적으로 필요한 심리 및 생활 지원 등에 대해 다룬 후 점차 진로 문제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다.

다음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진로상담 절차를 진단, 개입, 추수지도 과정으로 구분하여 총 6단계로 제시한 표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1]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진로상담 절차

(참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p.56).

1단계에서는 학교부적응 경험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응의 내용과 정도를 파악한다. 그런 다음, 2단계에서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교부적응의 내용과 정도를 토대로 문제의 우선순위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진로상담 유형을 진단한다. 학교부적응의 내용이 단일 문제일 경우 해당 문제를 중심으로 진로상담 유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학교부적응의 내용이 복합적일 때면 문제의 우선순위를 따져 우선적으로 진단할 유형을 선택한다. 3단계에서는 현재 학교부적응 문제에 대해 청소년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 및 평가한다. 다음으로, 4단계에서 학교부적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개입전략을 적용한다. 개입전략 적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목표했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면, 상담을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 추수상담 등을 통해 계획한 실천행동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격려한다.

이상의 절차는 한 회기 상담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회기 동안 나누어 진행하거나 반복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학교부적응 현상이 단일 문제인 경우 1-6단계까지 한 차례에 걸쳐 진행하거나 4단계까지 반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복합적인 문제인 경우 2단계부터 6단계까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음의 <표 II-4>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시 진로대안 탐색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 II. 청소년 성격특성과 상담 개입

<표 II-4>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진로대안 탐색을 위한 실행방안

단계	실행방안	질문 및 반응 예시
자기이해 활동	과거의 경험 및 학습에 대한 선호여부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혹시 평소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하는 일이 있니? 그 일의 어떤 점이 특별히 좋은 것 같니?</li> <li>• 그 외에도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10가지 정도 말해볼까?</li> </ul>
	내담자의 흥미와 적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제 심리검사나 학생기록부 등 너에 대한 기록을 보며 함께 이야기해보자. 기록을 보니 이런 일도 좋아한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생각해?</li> </ul>
	검사 이외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흥미나 적성 탐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혹시 그동안 해왔던 학교 활동 중 관심있고 재미있게 했던 활동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줄 수 있겠니?</li> <li>• 봤던 영화나 TV 프로그램 중에서 재미있게 느꼈던 것은?</li> <li>• 그 중에서 특히 더 관심이 간다거나, 해보고 싶다고 느꼈거나, 너에게 보다 잘 맞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니?</li> </ul>
진로정보 제공	관심 진로 정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혹시 지금 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둔 것이 있니?</li> <li>• (없다면) 완전히 마음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재미있어 보이는 직업이 있을 것 같은데?</li> <li>• 그 직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알고 있니?</li> </ul>
	진로정보 탐색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혹시 그 직업에 대해서 찾아보았니?</li> <li>• 찾아본 정보들은 어떤 것이니? 그 정보는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었니? 그동안 진로정보가 궁금할 때 어떻게 해왔니?</li> <li>• 찾았던 진로정보는 만족스러웠니?</li> </ul>
	진로정보 탐색 관련 실천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 관련 정보는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까? 혹시 사이트들을 알고 있니?</li> <li>• 너의 진로를 준비하는 데 어떤 정보들을 좀 더 알아보면 좋을까? 오늘 배운 방법으로 그 정보들을 찾아볼까?</li> </ul>

진로목표 설정	진로 목표를 갖는 것의 중요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것은, 매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기대감 가운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li> </ul>
	내담자의 흥미와 적성 이해 및 관심 직업분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 네 흥미와 적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자</li> <li>• 너는 어떤 일을 할 때 시간가는줄 모르고 집중하는 것 같니? 그 일의 어떤 점이 특별히 좋은 것 같니?</li> <li>• 그동안 해왔던 체험활동 중 관심있고 재미있게 했던 활동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줄 수 있겠니?</li> <li>• 봤던 영화나 tv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더 관심이 간다거나 해보고싶다고 느꼈거나 너에게 보다 잘 맞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니?</li> </ul>
	진로정보 탐색 지도 및 자기주도 진로탐색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를 찾아가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정보야. 사이트에서 여러 직업, 학과 관련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어</li> <li>• 앞으로도 궁금한 정보가 있으면 스스로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좋겠어</li> </ul>
진로목표 변경	진로목표 변경 동기/ 원인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이유로 진로목표를 바꾸게 되었니? 계기가 있을까?</li> <li>• 진로목표를 변경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가장 기대되니?</li> </ul>
	변경된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롭게 관심을 가지는 진로목표가 있다면, 너의 진로목표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li> </ul>
	진로목표 변경의 어려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목표를 바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니? 그게 무엇인지 말해주겠니?</li> </ul>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논의 및 구체적인 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를 바꾸는 데 직면한 문제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li> <li>• 이야기 나눈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계획해보자</li> </ul>



## II. 청소년 성격특성과 상담 개입

<b>직업 (직장) 대안 탐색</b>	<p>현재 직업에서 불만족하고 있는 정도와 원인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떤 이유로 직업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니? 특별한 계기가 있니?</li> <li>지금 직업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 정도의 점수를 표현해본다면 1-10 사이에 몇 점이니?</li> <li>그 불편감을 주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니?</li> </ul>
	<p>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있다면 말해주겠니?</li> <li>그 노력을 스스로 평가해보고 새롭게 시도할만한 노력이 있다면 이야기해보자</li> </ul>
	<p>새로운 직업(직장) 대안 탐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직장)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 중에서 너에게 보다 잘 맞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니? 그 직업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li> <li>그 동안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짚어보고 구체적인 방법과 시간 계획을 세워보자</li> </ul>
<b>진로체험 안내 및 연계</b>	<p>내담자가 관심있는 직업(분야) 및 활동 탐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혹시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분야)이 있다면 말해주겠니?</li> <li>네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활동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까?</li> </ul>
	<p>진로체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 확인 및 관련 체험 정보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로체험으로 도움받길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니?</li> <li>진로체험에 대한 정보는 사이트에서 더 찾아볼 수 있어</li> <li>관련 활동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간 계획을 세워볼까?</li> </ul>



### III.

# 연구 결과

1. 성격 5요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38
2. 성격 5요인의 T-표준점수 분포에 따른 분석 결과 .....	43
3. 청소년 내담자의 호소문제 분석 결과 .....	47
4. 성격 5요인과 호소문제 분석 결과 .....	52
5. 신경증의 하위요인과 호소문제 분석 결과 .....	68



### III. 연구 결과

#### 1. 성격 5요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 1) 성격 5요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대상의 성격 5요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성격 5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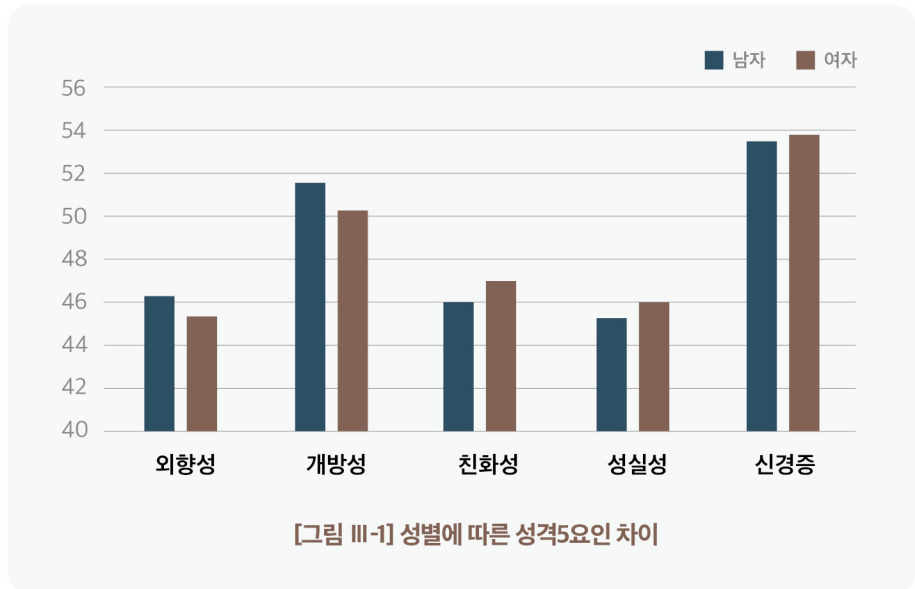
성격 5요인	평균(M)	표준편차(SD)	최소값	최대값
외향성	45.85	13.68	3.1	73.4
개방성	51.02	12.94	18.7	84.5
친화성	46.50	14.36	2.6	77.8
성실성	45.66	11.27	14.8	80.8
신경증	53.73	11.18	29.1	86.0

##### 2) 성별에 따른 성격 5요인 차이

성별에 따라 성격 5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III-2>에 제시하였다. 실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성격 5요인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 성별에 따른 성격 5요인 차이

성격 5요인	평균(M)		표준편차(SD)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외향성	46.30	13.94	45.36	13.47	0.41	0.68
개방성	51.65	13.50	50.32	12.34	0.61	0.54
친화성	46.05	12.83	47.00	15.97	-0.39	0.70
성실성	45.29	12.09	46.06	10.34	-0.41	0.68
신경증	53.60	11.33	53.88	11.08	-0.15	0.88



### 3) 학교급에 따른 성격 5요인 차이

학교급에 따라 성격 5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III-3>에 제시하였다. 실시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을 제외하고는,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방성에 한해,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 내담자(M=53.66)와 초등학생 내담자(M=46.59)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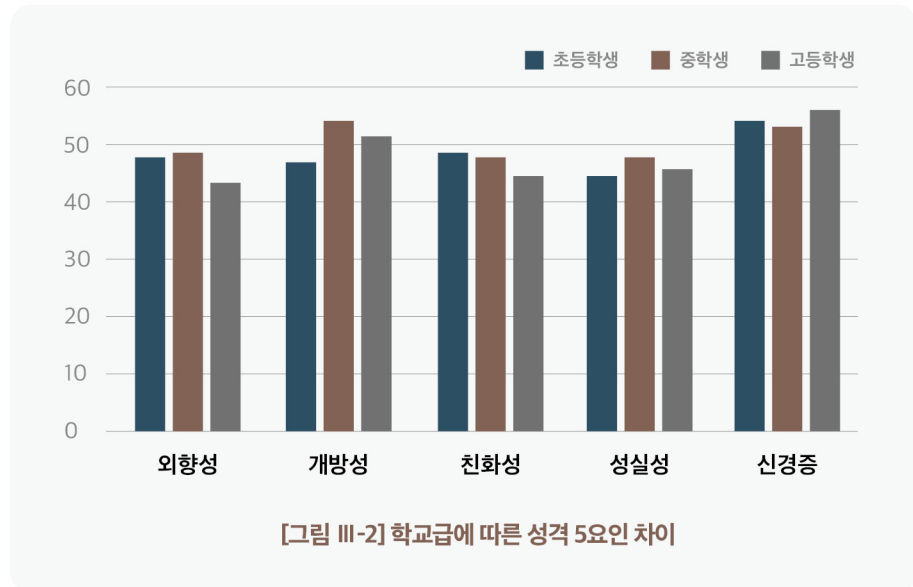
<표 III-3> 학교급에 따른 성격 5요인 차이

성격 5요인	초등학생(35)		중학생(56)		고등학생(52)		F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외향성	47.65	8.05	47.98	14.61	42.28	15.12	2.75	0.06
개방성	46.59	8.05	53.66	14.15	51.17	13.63	3.32*(2>1)	0.04
친화성	48.33	12.77	47.71	14.38	43.92	15.22	1.31	0.27
성실성	43.63	7.38	47.04	12.09	45.53	12.44	0.99	0.37
신경증	53.66	10.99	52.39	10.00	55.26	12.47	0.88	0.42

주1. \*\*\*p<.001, \*\*p<.01, \*p<.05  
 주2. 1 초등학생, 2 중학생, 3 고등학생



### III. 연구 결과



#### 4) 신경증의 하위요인에 따른 성별 차이

성별에 따라 신경증 하위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III-4>에 제시하였다. 단, 아동용(초등학생)과 청소년용(중·고등학생) 성격검사의 신경증 하위요인에는 차이가 있어, 아동용 검사지에 속하지 않은 요인(심약, 특이성, 반사회성, 자존감)에 한해서는 중·고등학생 내담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실시 결과, 특이성에서만 남학생(M=51.93)과 여학생(M=56.70) 내담자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2.09, p<.05$ ). 이는 여학생 내담자가 더 높은 특이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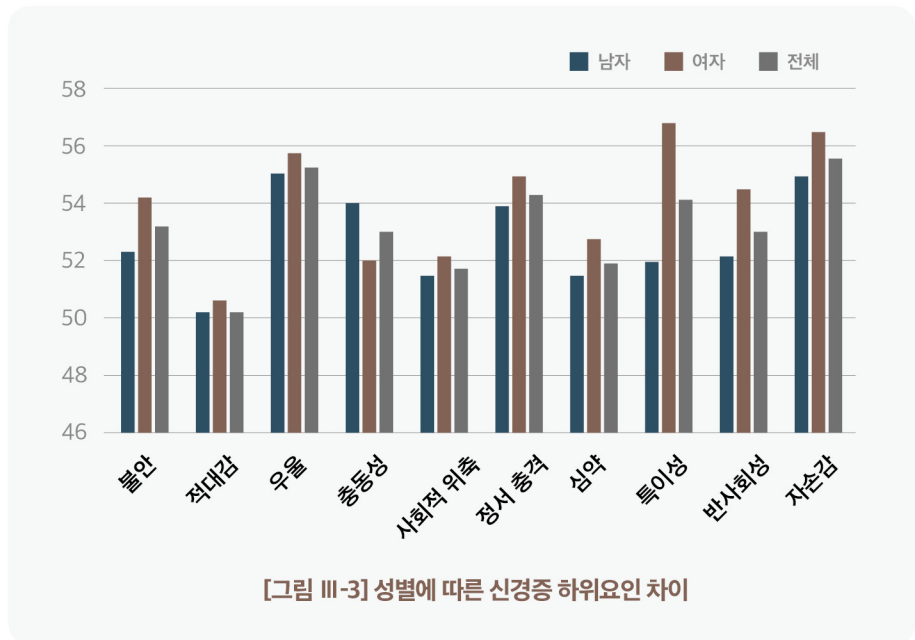
#### <표 III-4> 성별에 따른 신경증 하위요인 차이

성격 5요인	남자(76)		여자(67)		전체(143)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불안	52.31	13.02	54.16	11.29	53.11	12.23	-0.90	0.367
적대감	50.13	11.51	50.53	11.71	50.20	11.62	-0.20	0.837
우울	55.01	11.06	55.65	14.43	55.21	12.73	-0.29	0.766
충동성	53.98	10.31	52.07	11.41	53.03	10.82	1.04	0.300
사회적 위축	51.43	11.96	52.16	11.84	51.74	11.83	-0.36	0.717
정서 충격	53.86	12.22	54.86	12.11	54.26	12.13	-0.49	0.624



성격 5요인	남자(59)		여자(49)		전체(108)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심약	51.43	13.79	52.69	11.32	51.93	12.64	-0.51	0.607
특이성	51.92	10.30	56.69	12.91	54.05	11.73	-2.08*	0.040
반사회성	52.13	11.76	54.44	11.82	53.02	11.88	-1.01	0.315
자손감	54.96	9.59	56.47	10.41	55.52	10.01	-0.77	0.440

주. \*\*\*p<.001, \*\*p<.01, \*p<.05



### 5) 신경증 하위요인에 따른 학교급별 차이

학교급에 따라 신경증 하위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변량분석(One-way Anova)과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III-5>에 제시하였다. 이 역시 초등학생용 검사지에 속하지 않은 요인(심약, 특이성, 반사회성, 자손감)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 내담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실시 결과, 우울에서 고등학생 내담자(M=59.81)와 중학생 내담자(M=54.64)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5.969, p<.003).



### III. 연구 결과

<표 III-5>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신경증 하위요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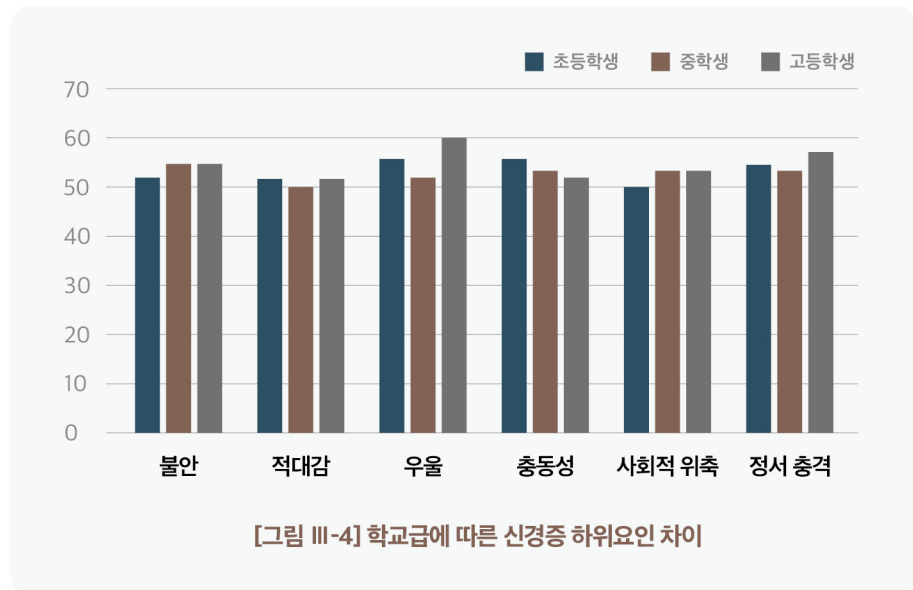
성격 5요인	초등학생(35)		중학생(56)		고등학생(52)		F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불안	51.77	10.71	53.57	12.31	53.73	13.24	0.31	0.73
적대감	50.73	10.17	49.59	11.74	50.83	12.435	0.18	0.84
우울	54.64	11.71	51.64	9.98	59.81	14.74	5.969** (3>2)	0.003
충동성	54.55	10.81	53.14	9.70	52.00	12.08	0.57	0.57
사회적 위축	48.99	9.76	52.91	12.36	52.44	12.54	1.30	0.28
정서 충격	53.77	13.16	52.64	10.93	56.58	12.56	1.46	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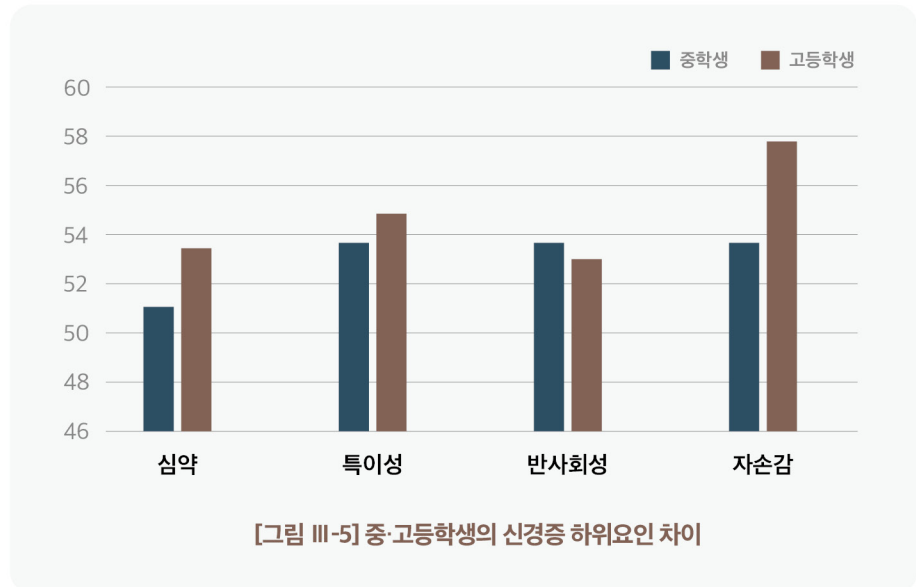
  

성격 5요인	중학생(56)		고등학생(52)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우울	50.76	10.98	53.39	14.30	-1.06	0.29
충동성	53.55	12.22	54.72	11.33	-0.51	0.61
사회적 위축	53.57	11.79	52.78	11.90	0.34	0.73
정서 충격	53.68	8.32	57.82	11.18	-2.159*	0.03

주1. \*\*\*p<.001, \*\*p<.01, \*p<.05

주2. 1 초등학생, 2 중학생, 3 고등학생





## 2. 성격 5요인의 T-표준점수 분포에 따른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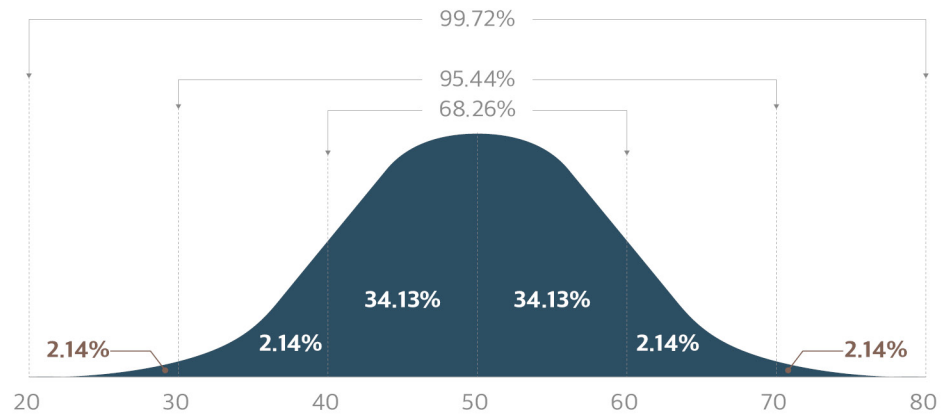
성격 5요인을 분석할 시에는 T-표준점수 범위와 백분위 점수를 바탕으로 요인별 범주를 나누어 해석한다(<표 III-6>, [그림 III-1] 참조). 요인별 점수(T-score)의 의미는 크게 5개 범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 점수가 35점 이하(아주 낮음, Very Low; VL), 또는 65점 이상(아주 높음, Very High; VH)에 속하게 되면은 자신의 환경에서 기능하는데 제약(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35점 이상 44점 이하(낮음, Low; L) 혹은 56점 이상 65점 이하(높음, High; H)에 속하는 점수는 취약성이 있을 가능성을 나타내나, 일관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고, 표현되지 않더라도 인자형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45점 이상 55점 이하의 점수(평균, Average; A)는 해당 요인과 관련한 행동을 높게 또는 낮게 나타낼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라 가변성과 적응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즉 정상분포(normal distribution) 안에서 상대적인 특성으로 개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경우, 낮은(L) 점수 범위 이하에 속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신경증의 경우는 높은(H) 점수 범위 이상에 속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표 III-6> NEO 성격검사 프로파일 해석 분류표

해석 범주	매우 낮음(VL)	낮음(L)	평균(A)	높음(H)	매우 높음(VH)
T-score(점수)	34점 이하	35점~44점	45점~55점	56점~65점	66점 이상
백분위	7%	24%	38%	24%	7%
퍼센트	0-7 %ile	8-31 %ile	32-70 %ile	71-95 %ile	95-100 %ile



[그림 III-6] T-표준점수 범위와 백분위 점수

#### 1) 성격 5요인의 T-표준점수 분포

성격 5요인의 T-표준점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III-7>은 성격 5요인의 T-표준점수에 속하는 학생 수를 성별에 따라 제시한 것이고, <표 III-8>은 성별에 따른 T-표준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표 III-7> 성별에 따른 성격 5요인의 T-표준점수 분포

단위: 명(%)

해석 범주	매우 낮음(VL)	낮음(L)	평균(A)	높음(H)	매우 높음(VH)	
외향성	남(76명)	12(8.4)	24(16.8)	22(15.4)	11(7.7)	7(4.9)
	여(67명)	14(9.8)	13(9.1)	25(17.5)	12(8.4)	3(2.1)
	전체(143명)	26(18.2)	37(26.1)	47(32.9)	23(16.1)	10(7.0)
개방성	남(76명)	6(4.2)	13(9.1)	29(20.3)	16(11.2)	12(8.4)
	여(67명)	8(5.6)	14(9.8)	20(14.0)	17(11.9)	8(5.6)
	전체(143명)	14(9.8)	27(18.9)	49(34.3)	33(23.1)	20(14.0)
친화성	남(76명)	12(8.4)	23(16.1)	25(17.5)	11(7.7)	5(3.5)
	여(67명)	13(9.1)	16(11.2)	19(13.3)	8(5.6)	11(7.7)
	전체(143명)	25(17.6)	39(27.3)	44(30.8)	19(13.3)	16(11.2)
성실성	남(76명)	14(9.8)	27(18.9)	23(16.1)	7(4.9)	5(3.5)
	여(67명)	10(7.0)	20(14.0)	24(16.8)	10(7.0)	3(2.1)
	전체(143명)	24(16.8)	47(32.9)	47(32.9)	17(11.9)	8(5.6)
신경증	남(76명)	3(2.1)	14(9.8)	25(17.5)	23(16.1)	11(7.7)
	여(67명)	-	16(11.2)	21(14.7)	20(14.0)	10(7.0)
	전체(143명)	3(2.1)	30(21.0)	46(32.2)	43(30.1)	21(14.7)

<표 III-8> 성별에 따른 성격 5요인의 T-표준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해석 범주	매우 낮음(VL)	낮음(L)	평균(A)	높음(H)	매우 높음(VH)	
외향성	남(76명)	24.29(11.36)	41.18(2.75)	50.29(3.10)	58.75(2.07)	70.39(2.18)
	여(67명)	25.53(9.50)	40.13(2.50)	49.62(3.29)	59.26(2.94)	69.37(3.02)
	전체(143명)	24.96(10.20)	40.81(2.86)	49.94(3.10)	59.02(2.58)	70.08(2.33)
개방성	남(76명)	24.75(5.46)	41.20(3.54)	49.14(2.67)	59.68(2.99)	73.14(6.83)
	여(67명)	29.04(2.94)	40.66(2.94)	50.14(2.77)	59.19(3.17)	70.08(5.04)
	전체(143명)	27.12(4.62)	40.92(3.19)	49.55(2.73)	59.43(3.04)	71.92(6.22)
친화성	남(76명)	26.43(9.08)	40.41(2.88)	50.24(2.61)	59.54(3.20)	71.24(3.87)
	여(67명)	23.65(10.80)	40.14(3.00)	50.23(2.58)	59.80(2.02)	69.73(3.22)
	전체(143명)	24.98(9.90)	40.30(2.89)	50.23(2.57)	59.65(2.70)	70.20(3.38)
성실성	남(76명)	28.37(5.04)	41.52(3.06)	50.11(3.35)	60.67(2.81)	70.86(6.23)
	여(67명)	30.35(3.46)	40.37(3.13)	49.49(3.02)	57.79(2.28)	69.93(3.34)
	전체(143명)	29.20(4.47)	41.03(3.11)	49.79(3.17)	58.98(2.83)	70.51(5.06)
신경증	남(76명)	31.77(39.42)	39.42(2.31)	50.02(2.91)	59.73(3.00)	71.54(5.28)
	여(67명)	-	40.54(3.04)	50.36(2.81)	58.48(2.34)	73.40(6.39)
	전체(143명)	31.77(2.81)	40.02(2.74)	50.17(2.84)	59.15(2.75)	72.42(5.76)

주1. ( )안은 표준편차임



### III. 연구 결과

#### 2) 학교급에 따른 성격 5요인의 T-표준점수 분포

학교급에 따른 성격 5요인의 T-표준점수 분포는 <표 III-9>, <표 III-10>과 같다.

<표 III-9> 학교급에 따른 성격 5요인의 T-표준점수 분포

단위: 명(%)

해석 범주	매우 낮음(VL)	낮음(L)	평균(A)	높음(H)	매우 높음(VH)	
외향성	초등학생(35)	3(8.57)	10(28.57)	16(45.71)	5(14.29)	1(2.86)
	중학생(56)	8(14.29)	16(28.57)	14(25.00)	12(21.43)	6(10.71)
	고등학생(52)	15(29.41)	11(21.57)	18(35.29)	4(7.84)	3(5.88)
개방성	초등학생(35)	3(8.57)	9(25.71)	20(57.14)	3(8.57)	-
	중학생(56)	4(7.14)	8(14.29)	23(41.07)	9(16.07)	12(21.43)
	고등학생(52)	7(13.73)	10(19.61)	12(23.53)	15(29.41)	7(13.73)
친화성	초등학생(35)	2(5.71)	14(40.00)	10(28.57)	4(11.43)	5(14.29)
	중학생(56)	11(19.64)	12(21.43)	18(32.14)	9(16.07)	6(10.71)
	고등학생(52)	12(23.53)	13(25.49)	17(33.33)	4(7.84)	5(9.80)
성실성	초등학생(35)	3(8.57)	18(51.43)	13(37.14)	1(2.86)	-
	중학생(56)	8(14.29)	18(32.14)	19(33.96)	6(10.71)	5(8.93)
	고등학생(52)	13(25.49)	11(21.57)	19(37.25)	5(9.80)	3(5.88)
신경증	초등학생(35)	-	8(22.86)	12(34.29)	11(31.43)	4(11.43)
	중학생(56)	2(3.57)	12(21.43)	18(32.14)	19(33.93)	5(8.93)
	고등학생(52)	1(1.96)	9(17.65)	20(39.22)	9(17.65)	12(23.53)

<표 III-10> 학교급에 따른 성격 5요인 T-표준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해석 범주	매우 낮음(VL)	낮음(L)	평균(A)	높음(H)	매우 높음(VH)	
외향성	초등학생(35)	33.20(8.2)	42.14(1.97)	49.06(3.30)	59.20(3.15)	65.90(-)
	중학생(56)	23.51(10.51)	39.92(2.67)	51.62(2.47)	59.46(2.32)	70.68(2.23)
	고등학생(52)	24.08(10.68)	40.90(2.94)	49.83(3.42)	59.30(2.47)	70.27(1.50)
개방성	초등학생(35)	29.33(5.75)	40.98(3.28)	49.93(3.43)	58.47(1.85)	-
	중학생(56)	25.50(4.15)	40.43(3.96)	50.27(3.12)	59.19(2.25)	74.20(6.24)
	고등학생(52)	27.10(4.75)	41.27(2.72)	50.50(3.11)	61.35(2.63)	68.70(5.00)
친화성	초등학생(35)	9.60(3.82)	40.73(3.01)	49.95(2.81)	57.38(7.8)	70.64(3.04)
	중학생(56)	26.61(9.01)	40.96(2.65)	51.16(2.62)	60.43(2.98)	70.43(4.04)
	고등학생(52)	24.38(11.43)	39.22(2.99)	49.74(2.54)	61.10(1.52)	69.48(3.53)
성실성	초등학생(35)	32.07(2.11)	39.39(2.97)	50.05(4.01)	61.50(-)	-
	중학생(56)	27.55(6.46)	41.88(2.95)	49.88(3.54)	60.77(1.63)	69.46(3.72)
	고등학생(52)	29.55(3.06)	41.44(3.34)	50.90(3.19)	59.63(2.85)	72.27(7.39)
신경증	초등학생(35)	-	40.29(2.96)	49.64(2.56)	60.75(2.54)	72.98(8.95)
	중학생(56)	31.90(3.96)	40.06(2.66)	51.16(3.53)	58.85(2.26)	70.10(3.72)
	고등학생(52)	31.50(-)	39.96(3.05)	50.68(2.98)	59.42(3.17)	73.21(5.51)

### 3. 청소년 내담자의 호소문제 분석 결과

#### 1) 청소년 내담자의 호소문제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내담자의 호소문제는 아래의 <표 III-11>과 같다. 청소년이 가장 많이 호소한 문제는 친구관계(16.5%)이며, 그 다음 가족문제(12.9%)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12.3%), 성격(12.3%), 인터넷/스마트폰(12.3%) 순으로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친구관계(16.8%)와 가족문제(15.4%)가 가장 많이 호소되는 1순위로 나타났으며, 그 외 기타에는 그냥, 오고 싶어서, 폭력, 인생에 대한 흥미, 형제 관계, 습관, 무면허운전, 부모님의 권유, 공황장애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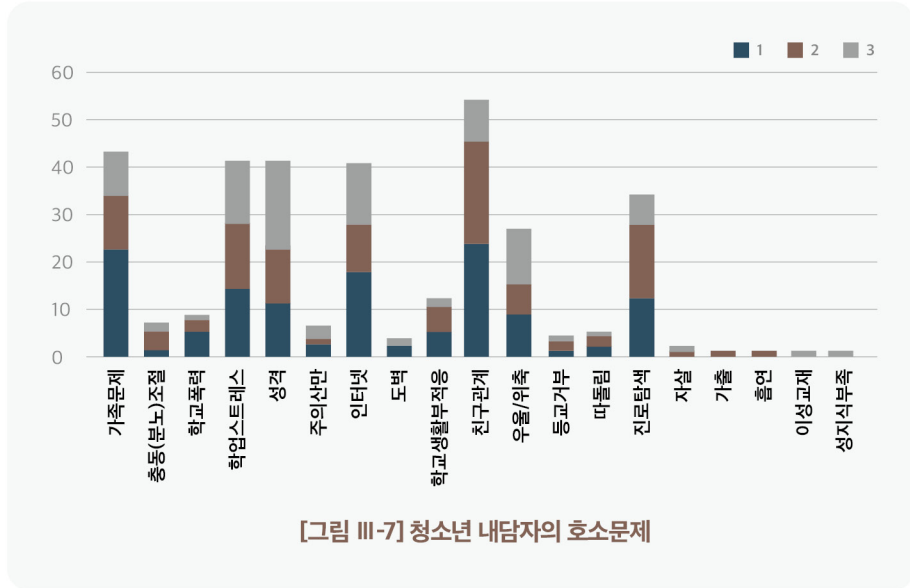
<표 III-11> 순위별 청소년 내담자의 호소문제

단위: 횟수(%)

호소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가족문제	22(15.4)	12(8.4)	9(6.3)	43(12.9)
충동(분노)조절	1(0.7)	3(2.1)	2(1.4)	6(1.8)
학교폭력	6(4.2)	2(1.4)	1(0.7)	9(2.7)
학업스트레스	14(9.8)	14(9.8)	13(9.1)	41(12.3)
성격	11(7.7)	12(8.4)	18(12.6)	41(12.3)
주의산만/과잉행동	3(2.1)	1(0.7)	3(2.1)	7(2.1)
인터넷/스마트폰	18(12.6)	10(7.0)	13(9.1)	41(12.3)
도벽	2(1.4)	-	1(0.7)	3(0.9)
학교생활부적응	5(3.5)	5(3.5)	2(1.4)	12(3.6)
친구관계	24(16.8)	22(15.4)	9(6.3)	55(16.5)
우울/위축	9(6.3)	6(4.2)	12(8.4)	27(8.1)
등교거부	1(0.7)	2(1.4)	1(0.7)	4(1.2)
따돌림	2(1.4)	2(1.4)	1(0.7)	5(1.5)
진로탐색	12(8.4)	16(11.2)	6(4.2)	34(10.2)
자살	-	1(0.7)	1(0.7)	2(0.6)
가출	-	1(0.7)	-	1(0.3)
흡연	-	1(0.7)	-	1(0.3)
이성교제	-	-	1(0.7)	1(0.3)
성지식부족	-	-	1(0.7)	1(0.3)



### III. 연구 결과



#### 2) 초등학교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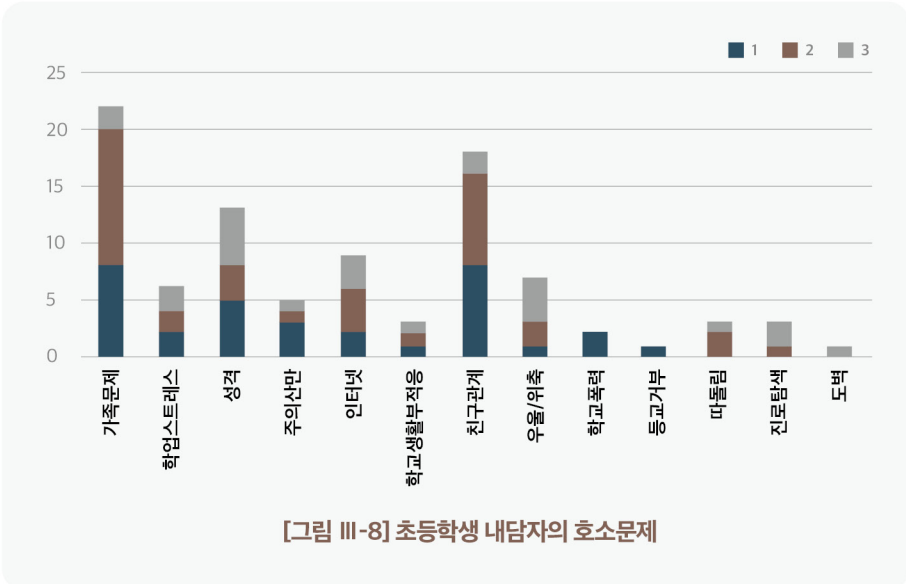
초등학교생 내담자의 호소문제는 아래와 <표 III-12>과 같다. 초등학교생 내담자가 가장 많이 호소한 문제는 가족문제(23.7%)이며, 다음으로 친구관계(19.4%), 성격(19.4%), 인터넷/스마트폰(9.7%), 우울/위축(7.5%) 순으로 확인되었다. 1순위에서도 가족문제(22.9%)와 친구관계(22.9%)가 가장 많이 호소되었다.

<표 III-12> 초등학교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단위: 횟수(%)

호소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가족문제	8(22.9)	12(8.4)	2(5.7)	22(23.7)
학업스트레스	2(5.7)	2(5.7)	2(5.7)	6(6.5)
성격	5(14.3)	3(8.6)	5(14.3)	13(14.0)
주의산만/과잉행동	3(8.6)	1(2.9)	1(2.9)	5(5.4)
인터넷/스마트폰	2(5.7)	4(11.4)	3(8.6)	9(9.7)
학교생활부적응	1(2.9)	1(2.9)	1(2.9)	3(3.2)
친구관계	8(22.9)	8(22.9)	2(5.7)	18(19.4)
우울/위축	1(2.9)	2(5.7)	4(11.4)	7(7.5)
따돌림	-	2(5.7)	1(2.9)	3(3.2)
진로탐색	-	1(2.9)	2(5.7)	3(3.2)
학교폭력	2(5.7)	-	-	2(2.2)
등교거부	1(2.9)	-	-	1(1.1)
도벽	-	-	1(2.9)	1(1.1)





3)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는 아래의 <표 III-13>과 같다. 중학생 내담자가 가장 많이 호소한 문제는 친구관계(15.7%)이며, 다음으로 인터넷/스마트폰(14.9%)로 나타났고, 그 뒤로 학업스트레스(10.7%), 진로탐색(10.7%), 우울/위축(9.9%) 순으로 확인되었다. 1순위로는 인터넷/스마트폰(21.4%)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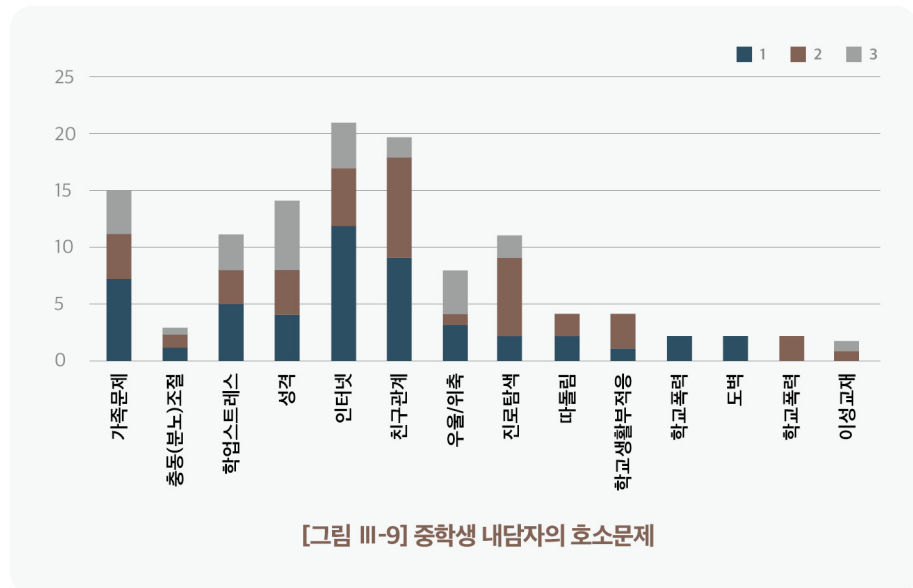


### III. 연구 결과

<표 III-13>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단위: 횟수(%)

호소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가족문제	7(12.5)	-	-	7(5.8)
충동(분노)조절	1(1.8)	-	-	1(0.8)
학업스트레스	5(8.9)	4(7.1)	4(7.1)	13(10.7)
성격	4(7.1)	1(1.8)	1(1.8)	6(5.0)
인터넷/스마트폰	12(21.4)	3(5.4)	3(5.4)	18(14.9)
친구관계	9(16.1)	4(7.1)	6(10.7)	19(15.7)
우울/위축	3(5.4)	5(8.9)	4(7.1)	12(9.9)
진로탐색	2(3.6)	9(16.1)	2(3.6)	13(10.7)
따돌림	2(3.6)	1(1.8)	4(7.1)	7(5.8)
학교생활부적응	1(1.8)	7(12.5)	2(3.6)	10(8.3)
학교폭력	2(5.7)	2(5.7)	-	4(3.3)
도벽	2(3.6)	3(5.4)	-	5(4.1)
학교폭력	-	-	-	-
등교거부	-	-	-	-
이성교제	-	2(3.6)	-	2(1.7)
주의산만/과잉행동	-	1(1.8)	-	1(0.8)
자살	-	1(1.8)	1(1.8)	2(1.7)
성지식부족	-	-	1(2.9)	1(0.8)







### III. 연구 결과

#### 4. 성격 5요인과 호소문제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별 호소문제에 차이가 나타나, 학교급에 따라 성격요인과 호소문제를 살펴보았다. 성격 5요인은 T-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낮은 점수(44점 이하, L) 분포 이하에 속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지 호소문제의 누적 순위를 살펴보고, 신경증은 높은 점수(56점 이상, H) 분포 이상에 속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호소문제의 누적 순위를 살펴보았다.

##### 1) 초등학교 내담자의 성격유형과 호소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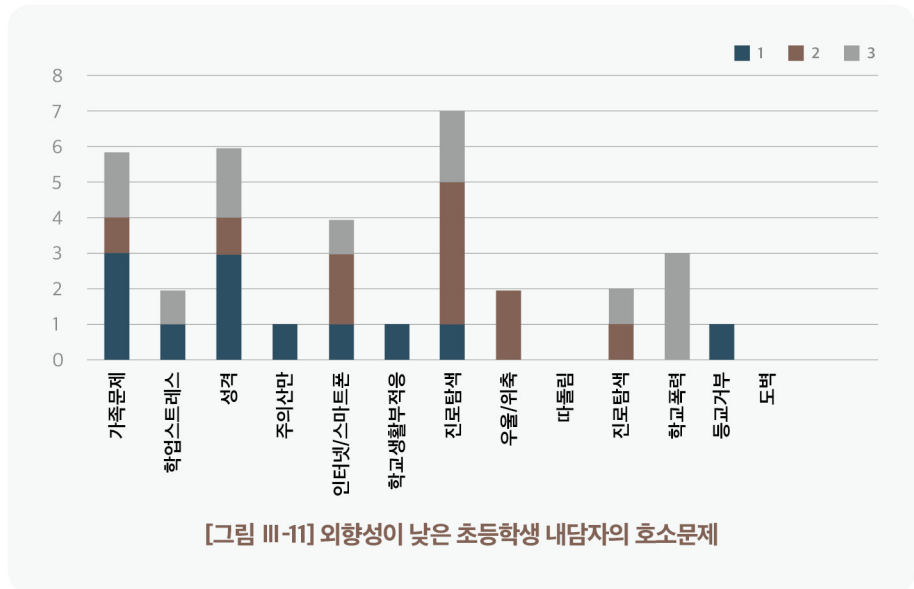
##### (1) 외향성이 낮은 초등학교 내담자의 성격유형과 호소문제

외향성의 T점수가 44점 이하인 초등학교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살펴본 결과를 <표 III-15>에 제시하였다. 외향성이 낮은 초등학교 내담자는 친구관계(53.9%), 가족문제(46.2%)와 성격(46.2%) 순으로 호소하였다. 1순위로는 가족문제(23.1%)와 성격(23.1%)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외향성이 낮은 초등학교 내담자의 호소문제

단위: 횟수(%)

호소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가족문제	3(23.1)	1(7.7)	2(15.4)
학업스트레스	1(7.7)	-	1(7.7)
성격	3(23.1)	1(7.7)	2(15.4)
주의산만	1(7.7)	-	-
인터넷/스마트폰	1(7.7)	2(15.4)	1(7.7)
학교생활부적응	1(7.7)	-	-
친구관계	1(7.7)	4(30.8)	2(15.4)
우울/위축	-	2(15.4)	-
따돌림	-	-	-
진로탐색	-	1(7.7)	1(7.7)
학교폭력	-	-	3(23.1)
등교거부	1(7.7)	-	-
도벽	-	-	-



### (2) 개방성이 낮은 초등학생 내담자의 성격유형과 호소문제

개방성의 T점수가 44점 이하인 초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살펴본 결과를 <표 III-16>에 제시하였다. 개방성이 낮은 초등학생 내담자의 경우, 성격(50%)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문제(41.6%), 친구관계(33.3%) 순으로 호소하였다. 1순위에서는 가족문제(33.3%)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는데, 학교폭력(16.7%)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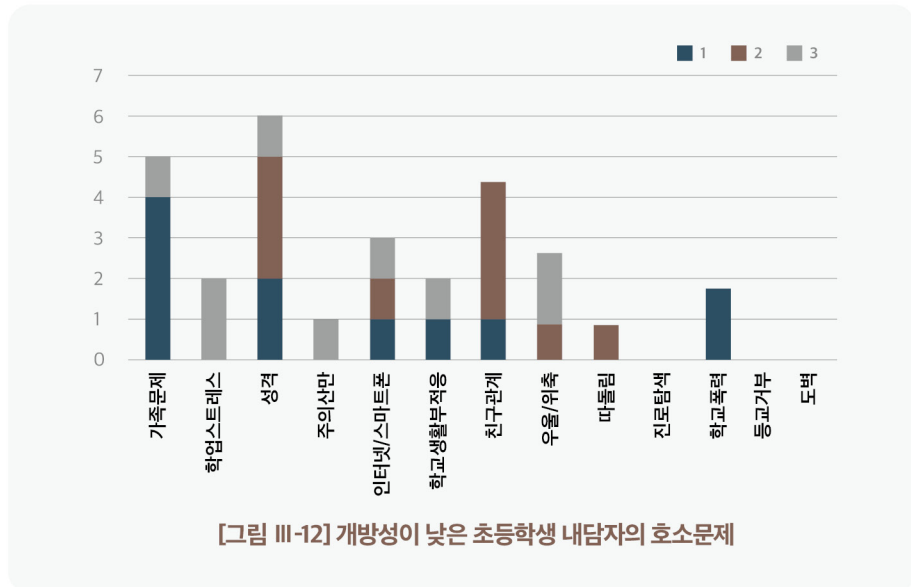
<표 III-16> 개방성이 낮은 초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단위: 횟수(%)

호소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가족문제	4(33.3)	-	1(8.3)
학업스트레스	-	-	2(16.7)
성격	2(16.7)	3(25.0)	1(8.3)
주의산만	-	-	1(8.3)
인터넷/스마트폰	1(8.3)	1(8.3)	1(8.3)
학교생활부적응	1(8.3)	-	1(8.3)
친구관계	1(8.3)	3(25.0)	-
우울/위축	-	1(8.3)	2(16.7)
따돌림	-	1(8.3)	-
진로탐색	-	-	-
학교폭력	2(16.7)	-	-
등교거부	-	-	-
도벽	-	-	-



### III.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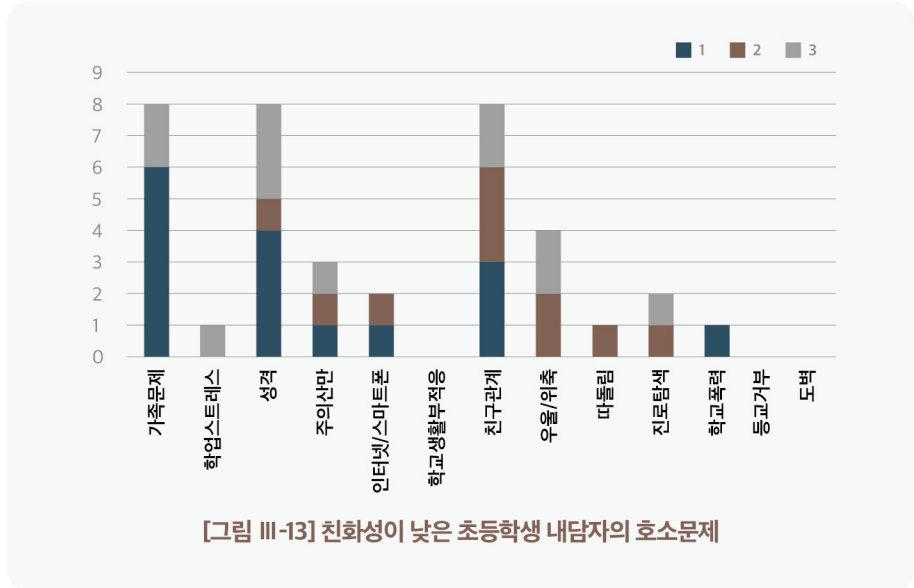
#### (3) 친화성이 낮은 초등학교 내담자의 성격유형과 호소문제

친화성의 T점수가 44점 이하인 초등학교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살펴본 결과를 <표 III-17>에 제시하였다. 친화성이 낮은 초등학교 내담자의 경우, 성격(50.1%)과 친구관계(50.1%), 가족문제(50%)를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에서는 가족문제(37.5%)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표 III-17> 친화성이 낮은 초등학교 내담자의 호소문제

단위: 횟수(%)

호소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가족문제	6(37.5)	2(12.5)	-
학업스트레스	-	-	1(6.3)
성격	4(25.0)	1(6.3)	3(18.8)
주의산만	1(6.3)	1(6.3)	1(6.3)
인터넷/스마트폰	1(6.3)	1(6.3)	-
학교생활부적응	-	-	-
친구관계	3(18.8)	3(18.8)	2(12.5)
우울/위축	-	2(12.5)	2(12.5)
따돌림	-	1(6.3)	-
진로탐색	-	1(6.3)	1(6.3)
학교폭력	1(6.3)	-	-
등교거부	-	-	-
도벽	-	-	-



#### (4) 성실성이 낮은 초등학교 내담자의 성격유형과 호소문제

성실성의 T점수가 44점 이하인 초등학교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살펴본 결과를 <표 III-18>에 제시하였다. 성실성이 낮은 초등학교 내담자의 경우, 친구관계(61.9%)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문제(42.9%)와 성격(42.9%)을 호소하였다. 1순위에서도 친구관계(28.6%)를 가장 많이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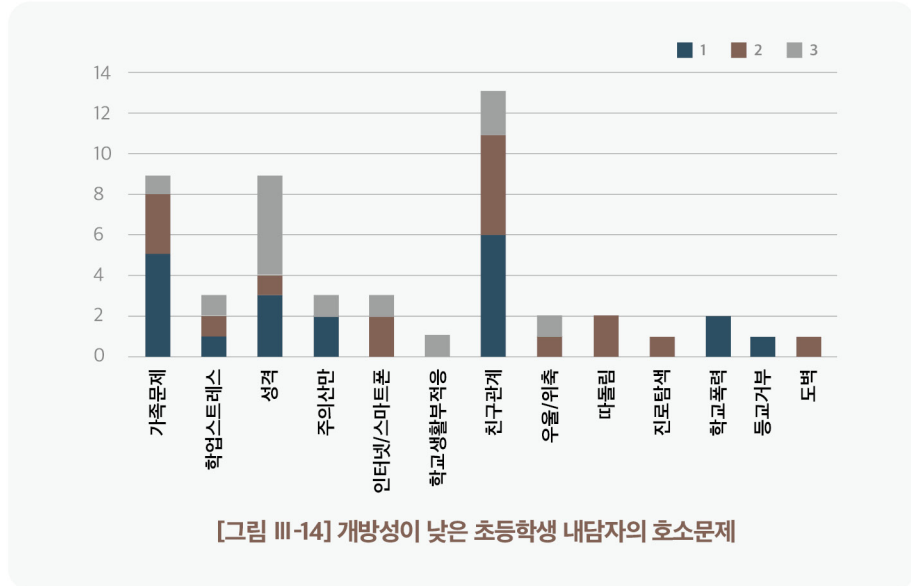
<표 III-18> 성실성이 낮은 초등학교 내담자의 호소문제

단위: 횟수(%)

호소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가족문제	5(23.8)	3(14.3)	1(4.8)
학업스트레스	1(4.8)	1(4.8)	1(4.8)
성격	3(14.3)	1(4.8)	5(23.8)
주의산만	2(9.5)	-	1(4.8)
인터넷/스마트폰	-	2(9.5)	1(4.8)
학교생활부적응	-	-	1(4.8)
친구관계	6(28.6)	5(23.8)	2(9.5)
우울/위축	-	1(4.8)	1(4.8)
따돌림	-	2(9.5)	-
진로탐색	-	1(4.8)	-
학교폭력	2(9.5)	-	-
등교거부	1(4.8)	-	-
도벽	-	-	1(4.8)



### III. 연구 결과



#### (5) 신경증이 높은 초등학생 내담자의 성격유형과 호소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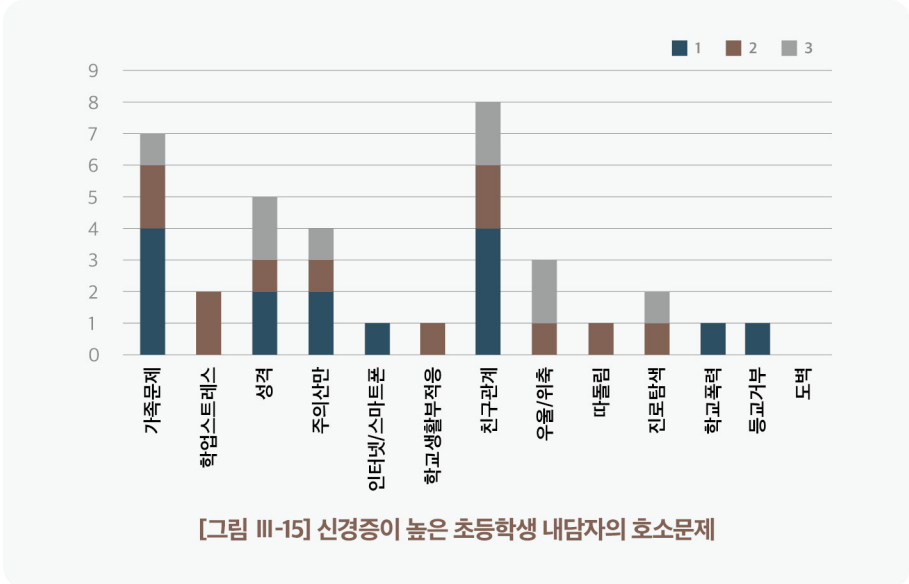
신경증은 다른 성격요인과 다르게 T점수가 56점 이상인 초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표 III-19>에 제시하였다. 신경증이 높은 초등학생 내담자의 경우, 친구관계(53.3%)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다음으로 가족문제(46.7%)와 성격(33.3%)을 호소하였다. 1순위에서도 가족문제(26.7%)와 친구관계(26.7%)를 가장 많이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신경증이 높은 초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단위: 횟수(%)

호소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가족문제	4(26.7)	2(13.3)	1(6.7)
학업스트레스	-	2(13.3)	-
성격	2(13.3)	1(6.7)	2(13.3)
주의산만	2(13.3)	1(6.7)	1(6.7)
인터넷/스마트폰	1(6.7)	-	-
학교생활부적응	-	1(6.7)	-
친구관계	4(26.7)	2(13.3)	2(13.3)
우울/위축	-	1(6.7)	2(13.3)
따돌림	-	-	1(6.7)
진로탐색	-	1(6.7)	1(6.7)
학교폭력	1(6.7)	-	-
등교거부	1(6.7)	-	-
도벽	-	-	-





2) 중학생 내담자의 성격유형과 호소문제

(1) 외향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의 성격유형과 호소문제

외향성의 T점수가 44점 이하인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살펴본 결과를 <표 III-20>에 제시하였다. 외향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의 경우, 친구관계(33.3%)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다음으로 가족문제(29.1%)와 인터넷/스마트폰(29.1%), 진로탐색(25.1%)과 성격(25%)을 호소하였다. 1순위에 서도 친구관계(20.8%)를 가장 많이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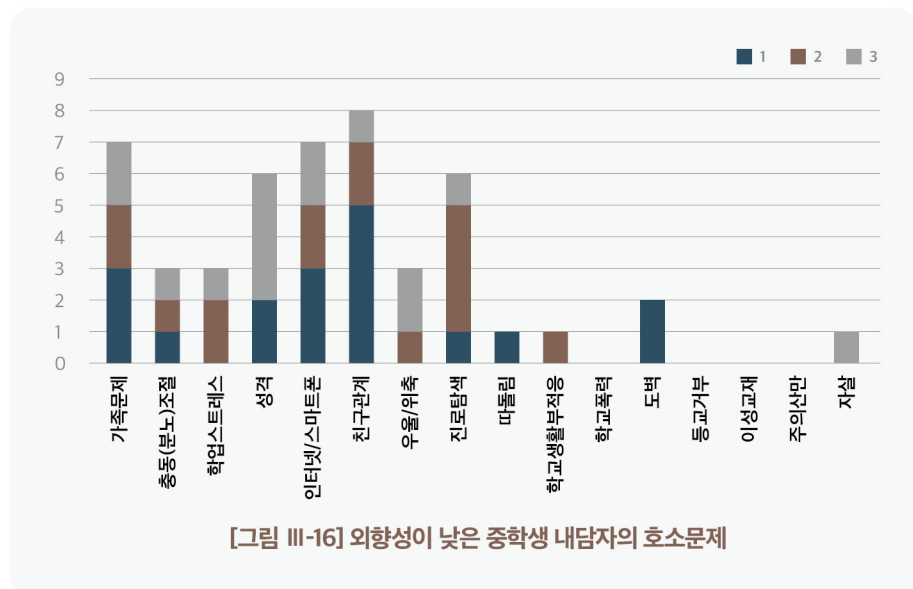


### III. 연구 결과

<표 III-20> 외향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단위: 횟수(%)

호소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가족문제	3(12.5)	2(8.3)	2(8.3)
충동(분노)조절	1(4.2)	1(4.2)	1(4.2)
학업스트레스	-	2(8.3)	1(4.2)
성격	2(8.3)	-	4(16.7)
인터넷/스마트폰	3(12.5)	2(8.3)	2(8.3)
친구관계	5(20.8)	2(8.3)	1(4.2)
우울/위축	-	1(4.2)	2(8.3)
진로탐색	1(4.2)	4(16.7)	1(4.2)
따돌림	1(4.2)	-	-
학교생활부적응	-	1(4.2)	-
학교폭력	-	-	-
도벽	2(8.3)	-	-
등교거부	-	-	-
이성교제	-	-	-
주의산만	-	-	-
자살	-	-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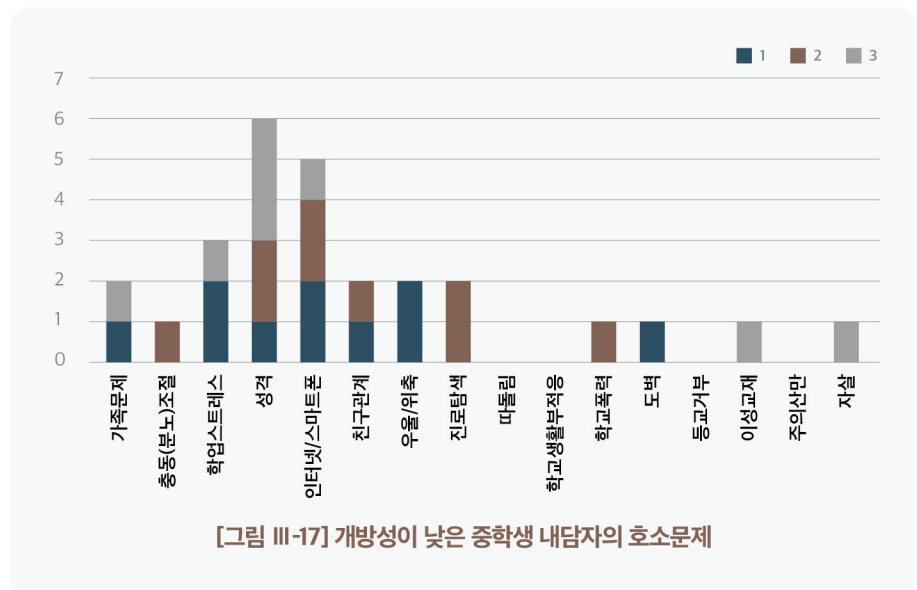
## (2) 개방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의 성격유형과 호소문제

개방성의 T점수가 44점 이하인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살펴본 결과를 <표 III-21>에 제시하였다. 개방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의 경우, 성격(50%)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다음으로 인터넷/스마트폰(41.7%)과 학업스트레스(25%)를 많이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에서는 학업스트레스(16.7%), 인터넷/스마트폰(16.7%), 우울/위축(16.7%)을 동일하게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개방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단위: 횟수(%)

호소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가족문제	1(8.3)	-	1(8.3)
충동(분노)조절	-	1(8.3)	-
학업스트레스	2(16.7)	-	1(8.3)
성격	1(8.3)	2(16.7)	3(25.0)
인터넷/스마트폰	2(16.7)	2(16.7)	1(8.3)
친구관계	1(8.3)	1(8.3)	-
우울/위축	2(16.7)	-	-
진로탐색	-	2(16.7)	-
따돌림	-	-	-
학교생활부적응	-	-	-
학교폭력	-	1(8.3)	-
도벽	1(8.3)	-	-
등교거부	-	-	-
이성교제	-	-	1(8.3)
주의산만	-	-	-
자살	-	-	1(8.3)





### III.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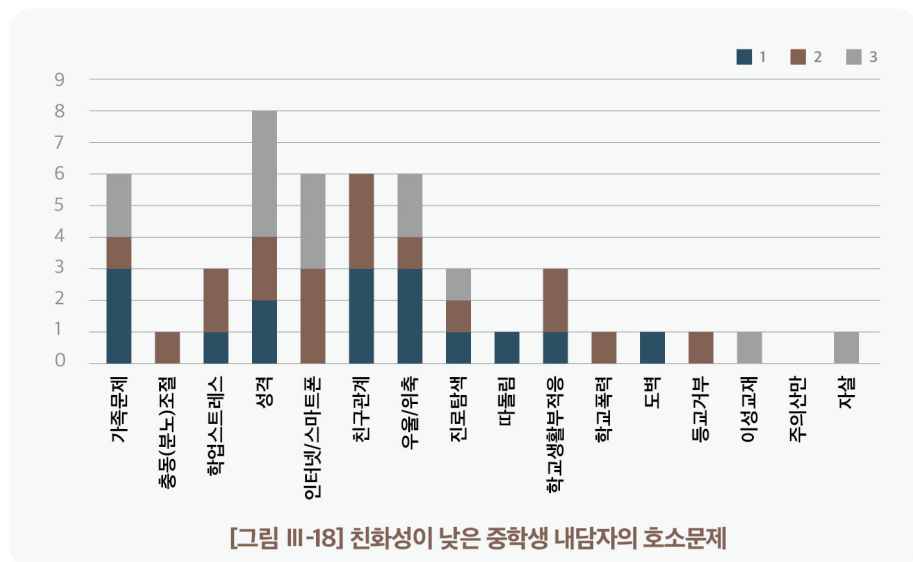
#### (3) 친화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의 성격유형과 호소문제

친화성의 T점수가 44점 이하인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살펴본 결과를 <표 III-22>에 제시하였다. 친화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의 경우, 성격(34.8%)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다음으로 가족문제(26%), 인터넷/스마트폰(26%), 친구관계(26%), 우울/위축(26%)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에서는 가족문제(13%), 친구관계(13%), 우울/위축(13%)을 동일하게 호소하였으나, 인터넷/스마트폰은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 친화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단위: 횟수(%)

호소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가족문제	3(13.0)	1(4.3)	2(8.7)
충동(분노)조절	-	1(4.3)	-
학업스트레스	1(4.3)	2(8.7)	-
성격	2(8.7)	2(8.7)	4(17.4)
인터넷/스마트폰	-	3(13.0)	3(13.0)
친구관계	3(13.0)	3(13.0)	-
우울/위축	3(13.0)	1(4.3)	2(8.7)
진로탐색	1(4.3)	1(4.3)	1(4.3)
따돌림	1(4.3)	-	-
학교생활부적응	1(4.3)	2(8.7)	-
학교폭력	-	1(4.3)	-
도벽	1(4.3)	-	-
등교거부	-	1(4.3)	-
이성교제	-	-	1(4.3)
주의산만	-	-	-
자살	-	-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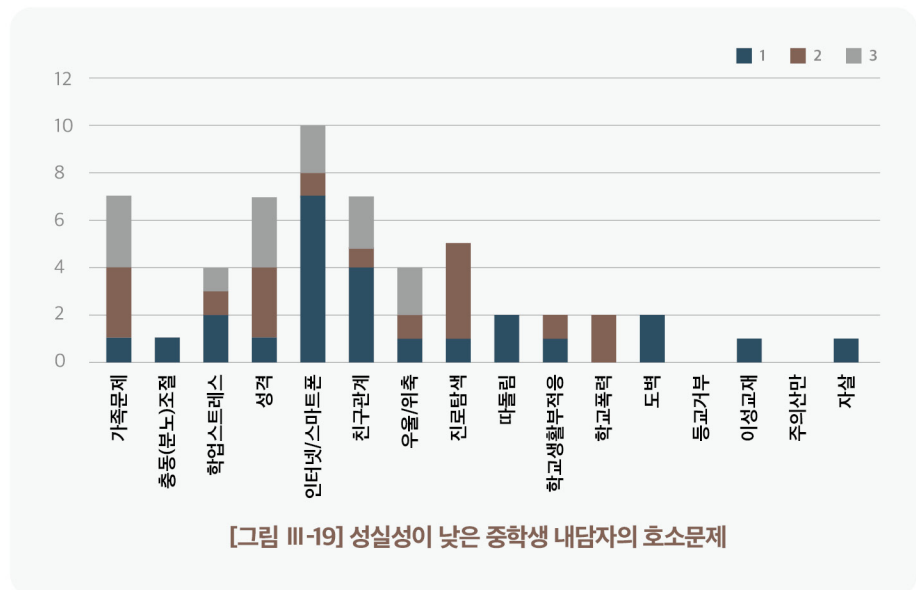
#### (4) 성실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의 성격유형과 호소문제

성실성의 T점수가 44점 이하인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살펴본 결과를 <표 III-23>에 제시하였다. 성실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의 경우, 인터넷/스마트폰(38.4%)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문제(26.8%), 성격(26.8%), 친구관계(26.8%)를 호소하였다. 1순위에서도 인터넷/스마트폰(26.9%)을 가장 많이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성실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단위: 횟수(%)

호소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가족문제	1(3.8)	3(11.5)	3(11.5)
충동(분노)조절	1(3.8)	-	-
학업스트레스	2(7.7)	1(3.8)	1(3.8)
성격	1(3.8)	3(11.5)	3(11.5)
인터넷/스마트폰	7(26.9)	1(3.8)	2(7.7)
친구관계	4(15.4)	1(3.8)	2(7.7)
우울/위축	1(3.8)	1(3.8)	2(7.7)
진로탐색	1(3.8)	4(15.4)	-
따돌림	2(7.7)	-	-
학교생활부적응	1(3.8)	1(3.8)	-
학교폭력	-	2(7.7)	-
도벽	2(7.7)	-	-
등교거부	-	-	-
이성교제	-	-	1(3.8)
주의산만	-	-	-
자살	-	-	1(3.8)





### III.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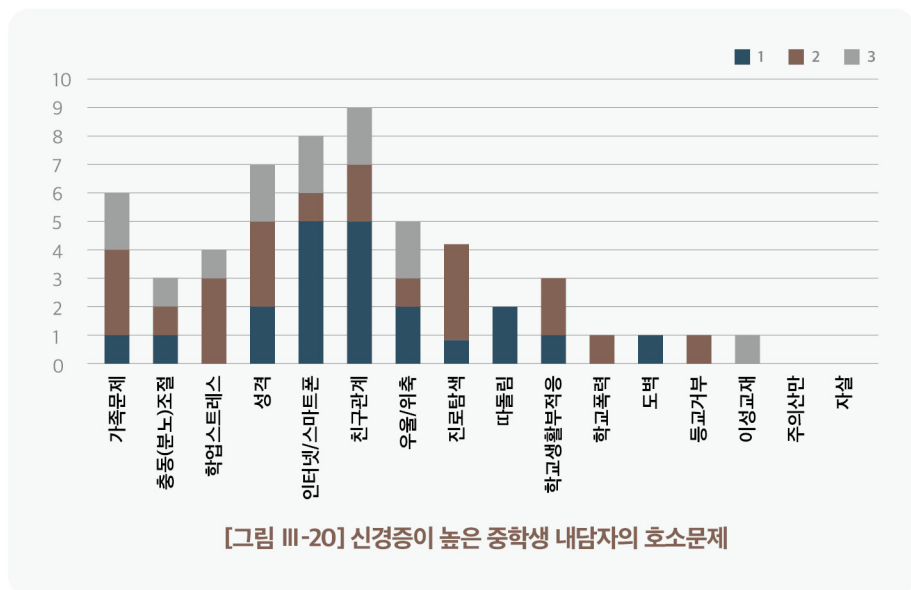
#### (5) 신경증이 높은 중학생 내담자의 성격유형과 호소문제

신경증의 T점수가 56점 이상인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살펴본 결과를 <표 III-24>에 제시하였다. 신경증이 높은 중학생 내담자의 경우, 친구관계(37.4%)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다음으로 인터넷/스마트폰(33.3%), 성격(29.1%) 순으로 호소하였다. 1순위에서는 친구관계(20.8%)와 인터넷/스마트폰(20.8%)을 동일하게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 신경증이 높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단위: 횟수(%)

호소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가족문제	1(4.2)	3(12.5)	2(8.3)
충동(분노)조절	1(4.2)	1(4.2)	1(4.2)
학업스트레스	-	3(12.5)	1(4.2)
성격	2(8.3)	3(12.5)	2(8.3)
인터넷/스마트폰	5(20.8)	1(4.2)	2(8.3)
친구관계	5(20.8)	2(8.3)	2(8.3)
우울/위축	2(8.3)	1(4.2)	2(8.3)
진로탐색	1(4.2)	1(4.2)	2(8.3)
따돌림	2(8.3)	-	-
학교생활부적응	1(4.2)	2(8.3)	-
학교폭력	-	1(4.2)	-
도벽	1(4.2)	-	-
등교거부	-	1(4.2)	-
이성교제	-	-	1(4.2)
주의산만	-	-	-
자살	-	-	-



3) 고등학생 내담자의 성격유형과 호소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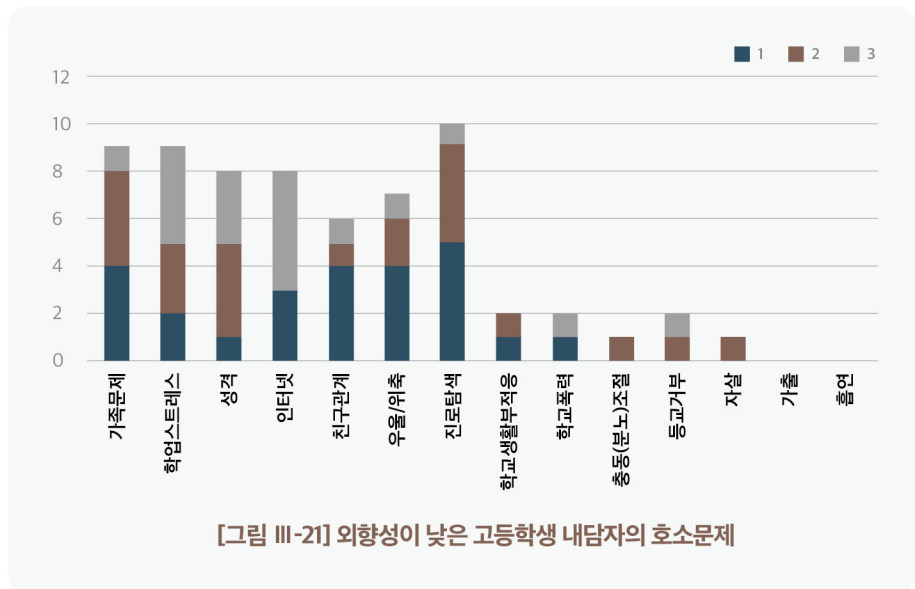
(1) 외향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의 성격유형과 호소문제

외향성의 T점수가 44점 이하인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살펴본 결과를 <표 III-20>에 제시하였다. 외향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의 경우, 친구관계(33.3%)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다음으로 가족문제(29.1%)와 인터넷/스마트폰(29.1%), 진로탐색(25.1%)과 성격(25%)을 호소하였다. 1순위에 서도 친구관계(20.8%)를 가장 많이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외향성이 낮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단위: 횟수(%)

호소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가족문제	4(15.4)	4(15.4)	1(3.8)
학업스트레스	2(7.7)	3(11.5)	4(15.4)
성격	1(3.8)	4(15.4)	3(11.5)
인터넷/스마트폰	3(11.5)	-	5(19.2)
친구관계	4(15.4)	1(3.8)	1(3.8)
우울/위축	4(15.4)	2(7.7)	1(3.8)
진로탐색	5(19.2)	4(15.4)	1(3.8)
학교생활부적응	1(3.8)	1(3.8)	-
학교폭력	1(3.8)	-	1(3.8)
충동(분노)조절	-	1(3.8)	-
등교거부	-	1(3.8)	1(3.8)
자살	-	1(3.8)	-
가출	-	-	-
흡연	-	-	-





### III.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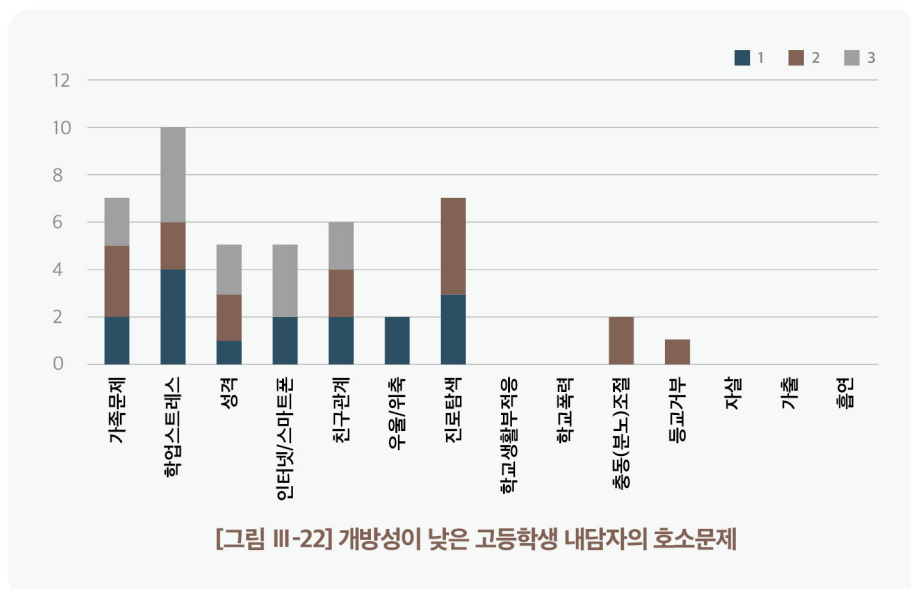
#### (2) 개방성이 낮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성격유형과 호소문제

개방성의 T점수가 44점 이하인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26>과 같다. 개방성이 낮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경우, 학업스트레스(58.8%)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다음으로 가족문제(41.2%)와 진로탐색(41.1%)을 호소하였다. 1순위에서도 학업스트레스(23.5%)를 가장 많이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6> 개방성이 낮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단위: 횟수(%)

호소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가족문제	2(11.8)	3(17.6)	2(11.8)
학업스트레스	4(23.5)	2(11.8)	4(23.5)
성격	1(5.9)	2(11.8)	2(11.8)
인터넷/스마트폰	2(11.8)	-	3(17.6)
친구관계	2(11.8)	2(11.8)	2(11.8)
우울/위축	2(11.8)	-	-
진로탐색	3(17.6)	4(23.5)	-
학교생활부적응	-	-	-
학교폭력	-	-	-
충동(분노)조절	-	2(11.8)	-
등교거부	-	1(5.9)	-
자살	-	-	-
가출	-	-	-
흡연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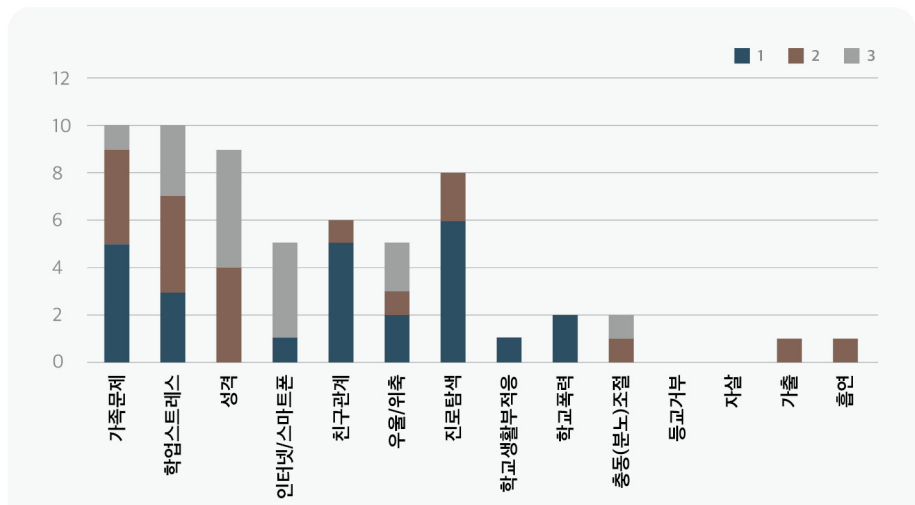
**(3) 친화성이 낮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성격유형과 호소문제**

친화성의 T점수가 44점 이하인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27>과 같다. 친화성이 낮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경우, 가족문제(40%)와 학업스트레스(40%)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으며, 다음으로 성격(36%)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에서는 진로탐색(24%)을 가장 많이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친화성이 낮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단위: 횟수(%)

호소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가족문제	5(20.0)	4(16.0)	1(4.0)
학업스트레스	3(12.0)	4(16.0)	3(12.0)
성격	-	4(16.0)	5(20.0)
인터넷/스마트폰	1(4.0)	-	4(16.0)
친구관계	5(20.0)	1(4.0)	-
우울/위축	2(8.0)	1(4.0)	2(8.0)
진로탐색	6(24.0)	2(8.0)	-
학교생활부적응	1(4.0)	-	-
학교폭력	2(8.0)	-	-
충동(분노)조절	-	1(4.0)	1(4.0)
등교거부	-	-	-
자살	-	-	-
가출	-	1(4.0)	-
흡연	-	1(4.0)	-



[그림 III-23] 친화성이 낮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 III.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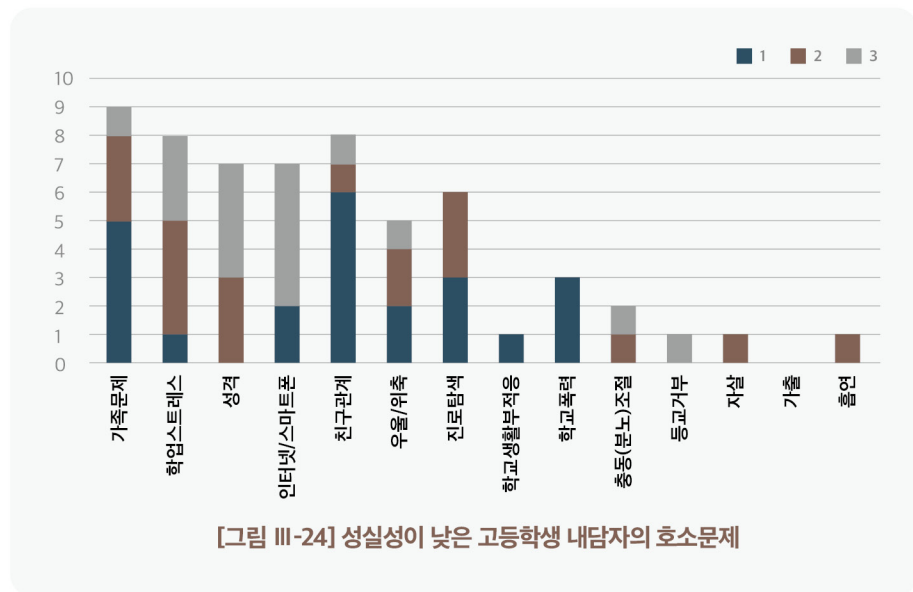
#### (4) 성실성이 낮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성격유형과 호소문제

성실성의 T점수가 44점 이하인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표 III-28>에 제시하였다. 성실성이 낮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경우, 가족문제(37.5%)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다음으로 학업스트레스(33.4%)와 친구관계(33.4%)를 호소하였다. 1순위에서는 친구관계(25%)를 가족문제(20.8%)보다 더 많이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성실성이 낮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단위: 횟수(%)

호소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가족문제	5(20.8)	3(12.5)	1(4.2)
학업스트레스	1(4.2)	4(16.7)	3(12.5)
성격	-	3(12.5)	4(16.7)
인터넷/스마트폰	2(8.3)	-	5(20.8)
친구관계	6(25.0)	1(4.2)	1(4.2)
우울/위축	2(8.3)	2(8.3)	1(4.2)
진로탐색	3(12.5)	3(12.5)	-
학교생활부적응	1(4.2)	-	-
학교폭력	3(12.5)	-	-
충동(분노)조절	-	1(4.2)	1(4.2)
등교거부	-	-	1(4.2)
자살	-	1(4.2)	-
가출	-	-	-
흡연	-	1(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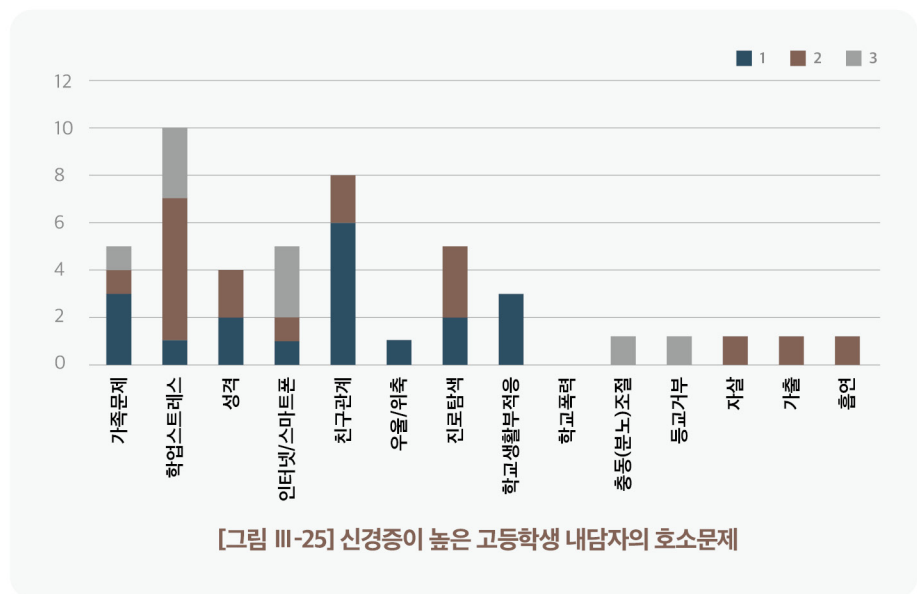
### (5) 신경증이 높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성격유형과 호소문제

신경증의 T점수가 56점 이상인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29>와 같다. 신경증이 높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경우, 학업스트레스(47.7%)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다음으로 친구관계(38.1%)를 호소하였다. 1순위에서는 친구관계(28.6%)를 가장 많이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신경증이 높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단위: 횟수(%)

호소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가족문제	3(14.3)	1(9.5)	1(9.5)
학업스트레스	1(4.8)	6(28.6)	3(14.3)
성격	2(9.5)	2(9.5)	-
인터넷/스마트폰	1(4.8)	1(4.8)	3(14.3)
친구관계	6(28.6)	2(9.5)	-
우울/위축	1(4.8)	-	-
진로탐색	2(9.5)	3(14.3)	-
학교생활부적응	3(14.3)	-	-
학교폭력	-	-	-
충동(분노)조절	-	-	1(4.8)
등교거부	-	-	1(4.8)
자살	-	1(4.8)	-
가출	-	1(4.8)	-
흡연	-	1(4.8)	-





### III. 연구 결과

#### 5. 신경증의 하위 요인과 호소문제 분석 결과

##### 1) 신경증이 높은 중·고등학생 내담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신경증의 T점수가 56점 이상인, 즉 높은 점수(H) 분포 이상에 속한 중·고등학생 내담자(n=45)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III-30>과 같다.

<표 III-30> 신경증이 높은 중·고등학생 내담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단위: 명(%)

호소문제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전체
남	12(26.7)	0(0)	1(2.2)	6(13.3)	2(4.4)	1(2.2)	22(48.9)
여	3(6.7)	5(11.1)	3(6.7)	4(8.9)	5(11.1)	3(6.7)	23(51.1)
전체	15(33.3)	5(11.1)	4(8.9)	10(22.2)	7(15.6)	4(8.9)	4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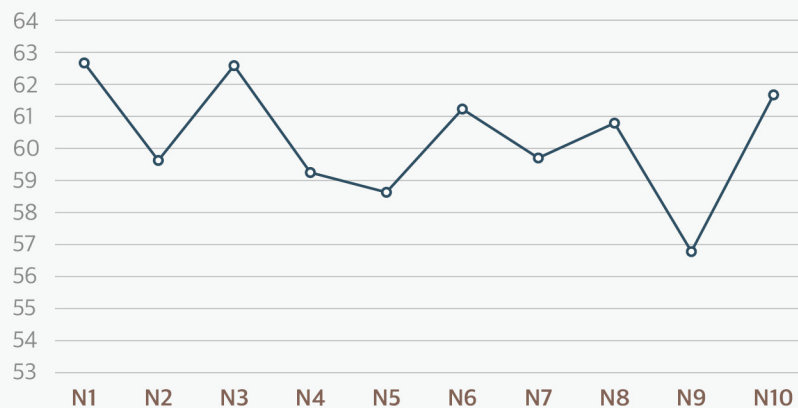
##### 2) 신경증이 높은 중·고등학생 내담자의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신경증의 T점수가 56점 이상인 중·고등학생 내담자(n=45)의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III-31>과 같다. 앞서 성별에 따라 특이성을 제외한 신경증의 나머지 하위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표 III-4> 참조),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내담자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표 III-31> 신경증이 높은 중·고등학생 내담자의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불안 N1	적대감 N2	우울 N3	충동성 N4	사회적위축 N5	정서충격 N6	심약 N7	특이성 N8	반사회 N9	자손감 N10
M (SD) 전체	62.76 (9.04)	59.80 (8.92)	62.65 (13.63)	59.16 (7.79)	58.56 (11.73)	61.11 (11.43)	59.72 (9.86)	60.85 (10.56)	56.83 (12.03)	61.62 (8.587)

주1. ( )안은 표준편차임



[그림 III-26] 신경증이 높은 중·고등학생 내담자의 하위요인 평균

3) 신경증의 하위요인과 호소문제

[그림 III-26]을 통해 신경증이 높은 중·고등학생 내담자의 경우, 불안, 우울,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이 높으면서 불안(N1), 우울(N3), 자존감(N10)이 높은 중·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각각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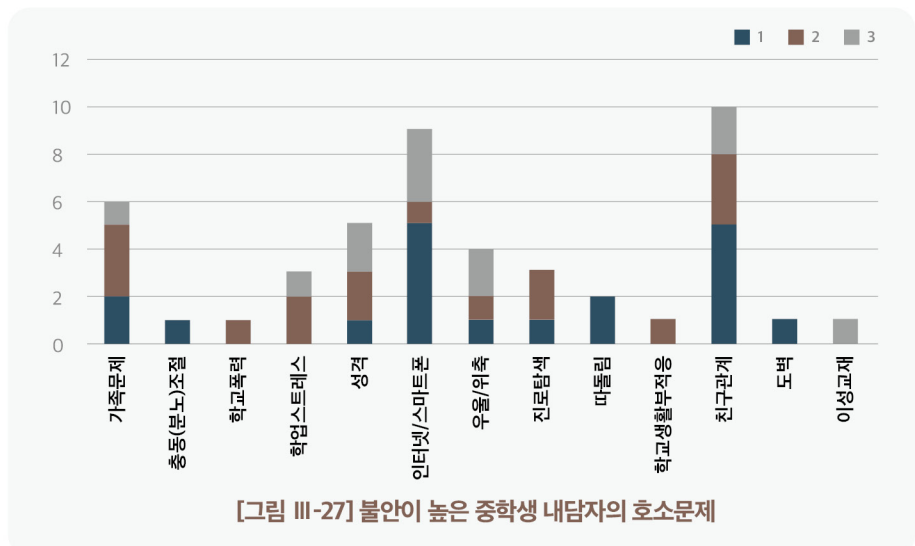
(1) 불안이 높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신경증이 높은 중학생 내담자 가운데, 불안의 T점수가 높은(56점 이상)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32>와 같다. 불안이 높은 중학생 내담자는 19명으로, 이들은 친구관계(21%)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다음으로 인터넷/스마트폰(19.15%)을 호소하였다. 1순위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23.8%)과 친구관계(23.8%)를 동일하게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 불안이 높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단위: 횟수(%)

호소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가족문제	2(9.5)	3(14.3)	1(4.8)
충동(분노)조절	1(4.8)	-	-
학교폭력	-	1(4.8)	-
학업스트레스	-	2(9.5)	1(4.8)
성격	1(4.8)	2(9.5)	2(9.5)
인터넷/스마트폰	5(23.8)	1(4.8)	3(14.3)
우울/위축	1(4.8)	1(4.8)	2(9.5)
진로탐색	1(4.8)	2(9.5)	-
따돌림	2(9.5)	-	-
학교생활부적응	-	1(4.8)	-
친구관계	5(23.8)	3(14.3)	2(9.5)
도벽	1(4.8)	-	-
이성교제	-	-	1(4.8)





### III.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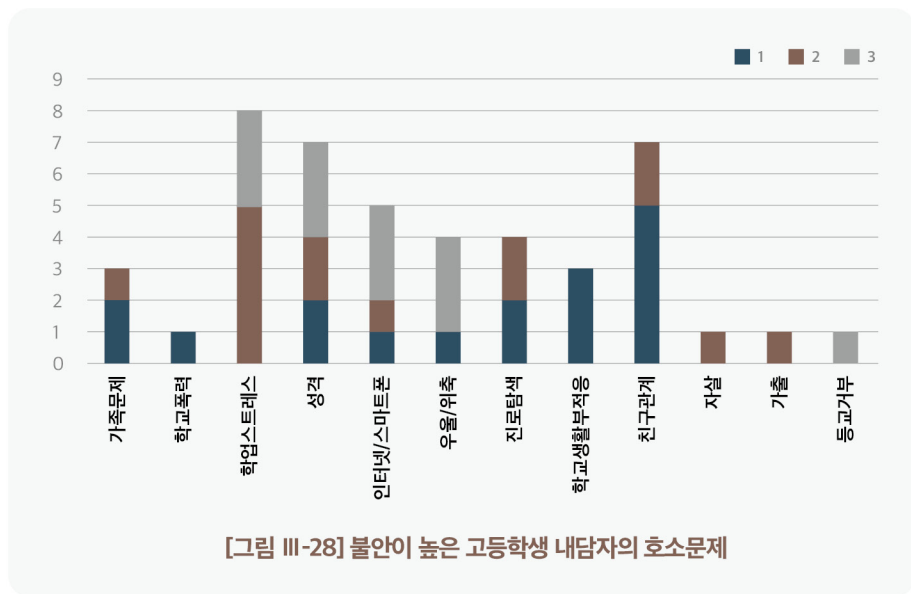
#### (2) 불안이 높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신경증이 높은 중·고등학생 내담자 가운데, 불안의 T점수가 높은(56점 이상)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33>과 같다. 불안이 높은 고등학생 내담자는 17명으로, 이들은 학업스트레스(21%)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다음으로 성격(18.42%)과 친구관계(18.42%)를 호소하였다. 1순위에서는 친구관계(27.8%)를 가장 많이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스트레스는 1순위에서 응답되지 않았다.

<표 III-33> 불안이 높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단위: 횟수(%)

호소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가족문제	2(11.1)	1(5.6)	-
학교폭력	1(5.6)	-	-
학업스트레스	-	5(27.8)	3(16.7)
성격	2(11.1)	2(11.1)	3(16.7)
인터넷/스마트폰	1(5.6)	1(5.6)	3(16.7)
우울/위축	1(5.6)	-	3(16.7)
진로탐색	2(11.1)	2(11.1)	-
학교생활부적응	3(16.7)	-	-
친구관계	5(27.8)	2(11.1)	-
자살	-	1(5.6)	-
가출	-	1(5.6)	-
등교거부	-	-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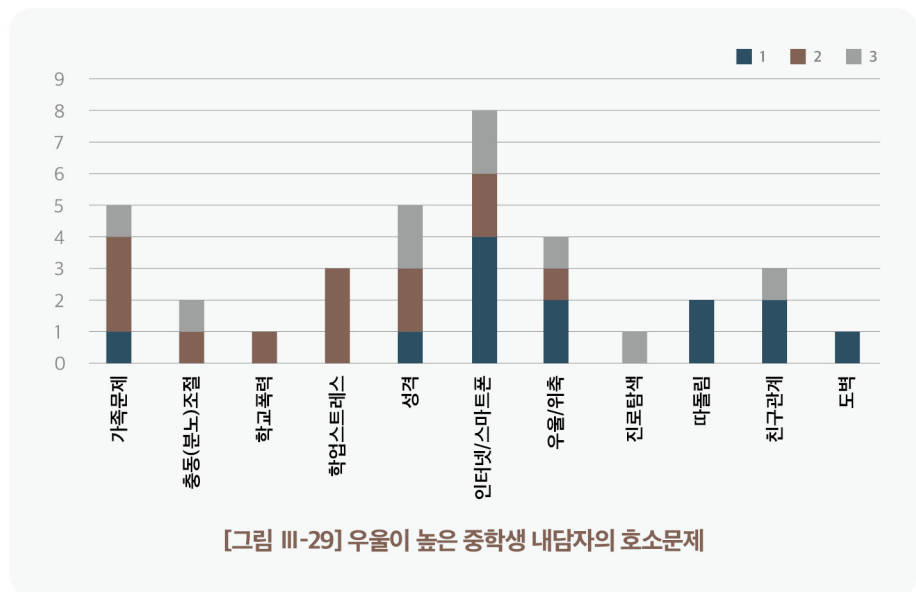
### (3) 우울이 높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신경증이 높은 중·고등학생 내담자 가운데, 우울의 T점수가 높은(56점 이상)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34>와 같다. 우울이 높은 중학생 내담자는 13명으로, 이들은 인터넷/스마트폰(21%) 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1순위에서도 인터넷/스마트폰(26.7%)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표 III-34> 우울이 높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단위: 횟수(%)

호소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가족문제	1(6.7)	3(20)	1(6.7)
충동(분노)조절	-	1(6.7)	1(6.7)
학교폭력	-	1(6.7)	-
학업스트레스	-	3(20)	-
성격	1(6.7)	2(13.3)	2(13.3)
인터넷/스마트폰	4(26.7)	2(13.3)	2(13.3)
우울/위축	2(13.3)	1(6.7)	1(6.7)
진로탐색	-	-	1(6.7)
따돌림	2(13.3)	-	-
친구관계	2(13.3)	-	1(6.7)
도박	1(6.7)	-	-





### III.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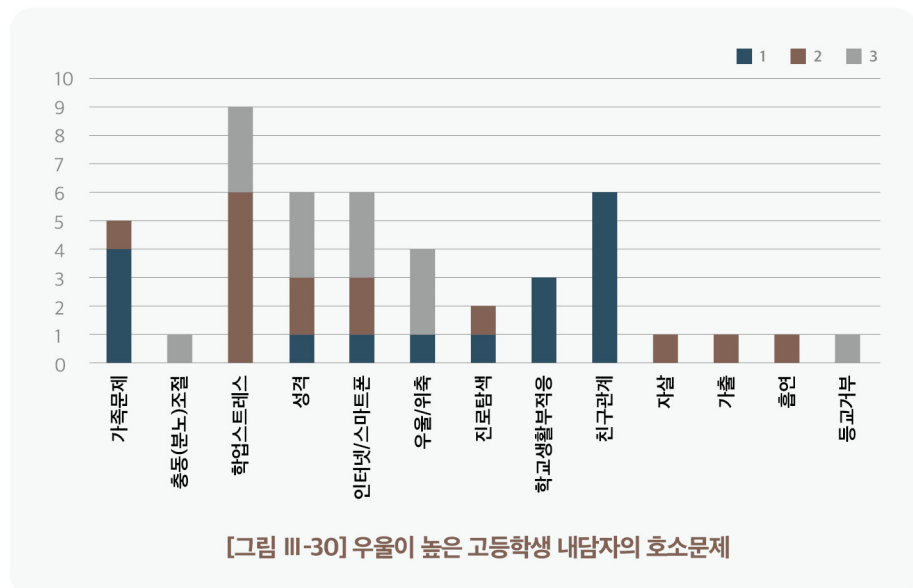
#### (4) 우울이 높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신경증이 높은 중·고등학생 내담자 가운데, 우울의 T점수가 높은(56점 이상)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35>와 같다. 우울이 높은 고등학생 내담자는 19명으로, 이들은 학업스트레스(18.36%)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가족문제(10.20%), 성격(10.20%), 인터넷/스마트폰(10.20%), 친구관계(10.20%)를 동일하게 호소하였다. 1순위에서는 친구관계(30%)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으나, 2, 3순위에서 친구관계는 응답되지 않았다.

<표 III-35> 우울이 높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단위: 횟수(%)

호소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가족문제	4(20)	1(5)	-
충동(분노)조절	-	-	1(5)
학업스트레스	-	6(30)	3(15)
성격	1(5)	2(10)	3(15)
인터넷/스마트폰	1(5)	2(10)	3(15)
우울/위축	1(5)	-	3(15)
진로탐색	1(5)	1(5)	-
학교생활부적응	3(15)	-	-
친구관계	6(30)	-	-
자살	-	1(5)	-
가출	-	1(5)	-
흡연	-	1(5)	-
등교거부	-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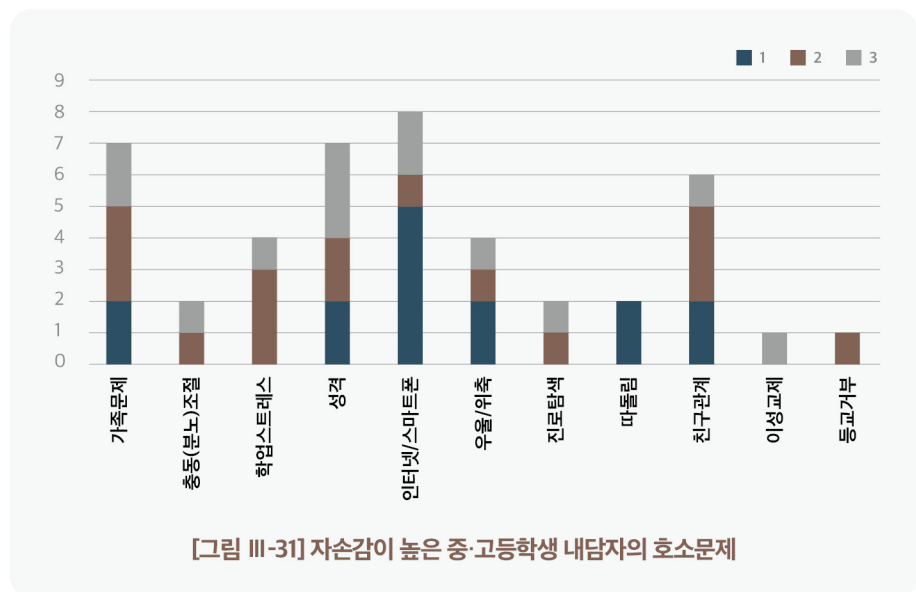
### (5) 자손감이 높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신경증이 높은 중·고등학생 내담자 가운데, 자손감의 T점수가 높은(56점 이상)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36>과 같다. 자손감이 높은 중학생 내담자는 17명으로, 이들은 인터넷/스마트폰(17.02%) 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다음으로 가족문제(14.89%)와 성격(14.89%)를 많이 호소하였다. 1순위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26.3%)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표 III-36> 자손감이 높은 중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단위: 횟수(%)

호소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가족문제	2(10.5)	3(15.8)	2(10.5)
충동(분노)조절	-	1(5.3)	1(5.3)
학교폭력	-	1(5.3)	-
학업스트레스	-	3(15.8)	1(5.3)
성격	2(10.5)	2(10.5)	3(15.8)
인터넷/스마트폰	5(26.3)	1(5.3)	2(10.5)
우울/위축	2(10.5)	1(5.3)	1(5.3)
진로탐색	-	1(5.3)	1(5.3)
따돌림	2(10.5)	-	-
친구관계	2(10.5)	3(15.8)	1(5.3)
이성교제	-	-	1(5.3)
등교거부	-	1(5.3)	-





### III.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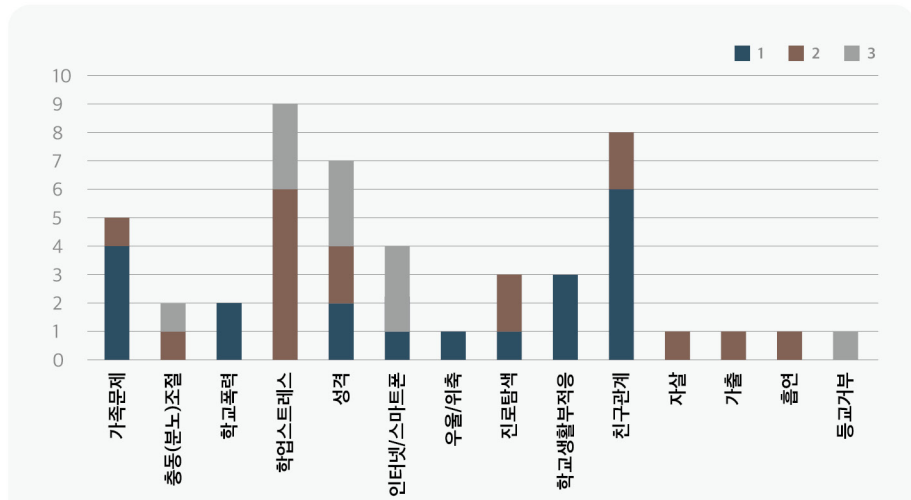
#### (6) 자손감이 높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신경증이 높은 중·고등학생 내담자 가운데, 자손감의 T점수가 높은(56점 이상)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37>과 같다. 자손감이 높은 고등학생 내담자는 20명으로 이들은 학업스트레스(17.30%), 친구관계(15.38%), 성격(13.46%) 순으로 호소하였다. 1순위에서는 친구관계(28.6%)를 가장 많이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7> 자손감이 높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단위: 횟수(%)

호소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가족문제	4(19.0)	1(4.8)	-
충동(분노)조절	-	1(4.8)	1(4.8)
학교폭력	2(9.5)	-	-
학업스트레스	-	6(28.6)	3(14.3)
성격	2(9.5)	2(9.5)	3(14.3)
인터넷/스마트폰	1(4.8)	-	3(14.3)
우울/위축	1(4.8)	-	-
진로탐색	1(4.8)	2(9.5)	-
학교생활부적응	3(14.3)	-	-
친구관계	6(28.6)	2(9.5)	-
자살	-	1(4.8)	-
가출	-	1(4.8)	-
흡연	-	1(4.8)	-
등교거부	-	-	1(4.8)



[그림 III-32] 자손감이 높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 IV. 주요 결과에 따른 논의

1. 청소년 내담자의 성격특성 분석에 따른 논의 ..... 76
2. 청소년 내담자의 호소문제 분석에 따른 논의 ..... 78
3. 청소년 내담자의 성격특성과 호소문제에 따른 논의 ..... 80



## IV. 주요 결과에 따른 논의

### 1. 청소년 내담자의 성격특성 분석에 따른 논의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내담자의 성격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격 5요인의 평균점수를 비교해 봤을 때,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보다 개방성이 다소 높았으며, 신경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성이 높을수록 새롭고 낯선 것에 대한 열린 태도로 상담에도 호의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신경증이 높은 점과 더불어, 상담센터에 내방 한 청소년 내담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성격 5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남녀 간 차이를 나타낸 연구결과(강은지, 최은실, 2017; 안창규, 채준호, 1997; Arpacı & Unver, 2020; Borrioni et al., 2014; Costa et al., 2001; Vechhino et al., 2012)와 차이가 있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개방성에서는 중학생 내담자가 초등학생 내담자보다 더 높은 특성을 나타냈고, 이 역시 학교급별 성격요인에 있어 차이를 보고한 연구결과(강은지, 최은실, 2017)와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발달적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성격특성이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차 성징에 의한 호르몬의 변화나 지적 수준의 발달이 입시나 진학에 대한 불안이나 압박과 같은 환경적 특성과 맞물려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실성이 예전보다 높아지면서 신경증도 같이 높아질 수 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향에서 내향으로 발달할 수 있다(강은지, 최은실, 2017; 김정택 외, 2013)

성격요인에 따른 성별, 학교급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그리 많지 않은 본 연구의 대상자 수에서 기인했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본 연구가 일반적인 청소년이 아닌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고자 센터에 내방 한 청소년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과 다른 청소년 내담자의 성격특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만으로 이를 단정지을 수 없기에,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신경증의 하위요인에서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특이성에 한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특이성은 심리적 소외나 혼란을 경험하는 정도로, 다른 신경증의 척도와 동시에 높게 나타난다면 임상적인 검사를 권유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음을 내포한다.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한 중·고등학교 여학생 내담자의 경우, 남학생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학생 청소년 내담자의 신경증적 특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학생 내담자가 초등학생 내담자와 중학생 내담자에 비해 더 우울하며, 더 낮은 자존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 위주의 입시 경쟁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고등학생 내담자의 어려움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우울을 호소하는 고등학생 내담자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함을 제시한다. 청소년 내담자가 매사에 무기력하고 쉽게 자포자기하며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진 않은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자신을 쓸모없게 여기지는 않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며 미래를 향해 긍정적인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격 5요인의 T-표준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평균 범위에 속해 있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내담자들은 신경증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다소 낮은 점수 범위에 많이 포함되었다.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낮은 점수에 더 많이 속했으며, 신경증에서는 남녀 학생 모두 높은 점수에 많이 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내담자는 개방성과 성실성의 가장 높은 점수 범위에 속하지 않았으며, 신경증의 가장 낮은 점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중·고등학생 내담자의 경우, 친화성과 성실성 모두 낮은 점수 범위에 많은 학생이 속해 있었는데, 특히 고등학생 내담자가 낮은 외향성과 높은 신경증에 더 많이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향에서 내향으로 성격유형이 발달하고(김정택 외, 2003), 입시와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 내담자에게서 신경증이 더 높아질 수 있다(강은지, 최은실, 2017)는 주장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은 그들이 속한 환경에 적응하며 성격을 형성해나간다고 볼 수 있다. 상담자는 무엇보다 청소년 내담자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또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신이 속한 가정이나 학교, 또래 집단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들의 성격적 특성을 바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IV. 주요 결과에 따른 논의

### 2. 청소년 내담자의 호소문제 분석에 따른 논의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내담자는 친구관계 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다음으로 가족문제, 학업스트레스, 성격, 인터넷/스마트폰 순으로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에서도 친구관계나 가족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어 청소년 내담자들이 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문제와 관련된 요인이 크게 개인, 가정, 학교, 사회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유성경 외, 2000)으로, 일상생활에서 학업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나타나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비롯하여 가정의 형태나 부모의 기대,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학업, 또래, 지역사회 등을 통해서도 청소년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소문제에 있어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등학교 내담자의 경우 가족문제, 친구관계, 성격, 인터넷/스마트폰 순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내담자는 1순위에서 가족문제와 친구관계를 동일하게 호소하였다. 초등학교 내담자는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들과의 관계는 초등학교 내담자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나 친구와의 관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일탈과 같은 문제행동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는 감소하지만, 친구와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진다. 최근에는 발달의 가속화로 초등학교 4학년 시기가 되면 이차 성징이 나타나고 사춘기가 시작되는데, 이는 정서적인 불안을 야기시켜 일탈행동에 더욱 민감하게 빠져들게 한다. 더욱이 사춘기가 되면서 독립에 대한 욕구가 커짐으로써 부모에 대한 반발심이 증가하나, 상대적으로 친구와의 친밀감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이주리, 2008). 따라서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내담자에게 있어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친구와의 관계를 확인하며 이를 위한 개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학생 내담자는 인터넷/스마트폰, 친구관계, 가족문제, 성격 순으로 호소하였는데, 인터넷/스마트폰을 1순위로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실시한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교 순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이 외벌이 가정의 청소년보다 스마트폰 과의존에 더욱 위험하며, 무엇보다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 내담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사춘기 시기, 정서에 반응하는 대뇌변연계는 성인만큼 발달하나 '뇌의 CEO'라 불리며 판단과 의사결정, 실행을 관장하는 전전두엽은 이제 발달을 시작하게 된다. 즉 사춘기는 전전두엽이 왕성하게 발달하는 시기이나,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전전두엽과 대뇌변연계의 발달 편차는 급격한 뇌의 변화를 체험하는 청소년의 이성적인 판단과 욕구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러한 욕구 조절 실패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의 조절 또한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며, 정서적인 불안정함이나 친구 간의 갈등과 같은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스마트폰의 세상으로 빠져들 수도 있고, 되려 친구들과 소통하고 함

께 놀기 위해, 혹은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사이버 세상으로 빠져들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의 개입이 제공됨과 동시에 자신의 주도적인 선택과 그 행동에 책임을 지는 과정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전전두엽의 성숙을 도모하며 성숙한 의사결정을 도와야 할 것이다.

반면, 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는 다른 학교급에 비해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생 내담자는 학업스트레스, 진로탐색, 친구관계, 가족문제 순으로 호소하였는데, 1순위로는 진로탐색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이는 고등학생 내담자가 중학생 내담자나 초등학생 내담자보다 진로문제를 더 많이 고민하고 있음을 제시한 것으로, 고등학생 내담자가 고민하는 문제로 학업 다음으로 진로문제로 나타난 조사(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에 고등학생 내담자의 경우, 이들이 처한 환경적 특성에 중점을 둔 개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따라 이들이 호소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개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발달적, 환경적 특성에 의해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이 호소하는 문제 상황 간에는 상호 관련성이 높다. 이는 센터에 내방하는 청소년이 한가지 문제만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이봉주 외, 2008). 따라서 청소년의 호소 문제 패턴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기본 개입 방안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상담자들은 청소년의 문제 패턴을 분류하고 유사한 문제들에 대한 양상을 고려하여 관련 문제에 대한 개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박한샘, 고은영, 2009; 황순길 외, 2015).



## IV. 주요 결과에 따른 논의

### 3. 청소년 내담자의 성격특성과 호소문제에 따른 논의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내담자의 성격특성과 그에 따른 호소문제에 근거하여 상담적 개입 방안을 살펴보았다.

우선,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에서는 낮은 점수 범위에 속한 학생들 및 신경증에서는 높은 점수 범위에 속한 학생들이 호소했던 문제를 학교급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 청소년 내담자의 성격특성과 호소문제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호소문제	1순위	호소문제	1순위	호소문제	1순위
외향성	친구관계 가족문제 성격	가족문제 성격	친구관계 가족문제 인터넷/ 스마트폰	친구관계	진로탐색 가족문제 학업스트레스	진로탐색
개방성	성격 가족문제 친구관계	가족문제 (학교폭력)	성격 인터넷/ 스마트폰	인터넷/스마트 폰 학업 우울	학업스트레스 가족문제 진로탐색	학업 스트레스
친화성	가족문제 성격 친구관계	가족문제	성격 가족문제 인터넷/ 스마트폰 친구관계 우울	가족문제 친구관계 우울	가족문제 학업스트레스 성격	진로탐색
성실성	친구관계 가족문제 성격	친구관계	인터넷/ 스마트폰 가족문제 성격 친구관계	인터넷/스마트 폰	가족문제 학업스트레스 친구관계	친구관계
신경증	친구관계 가족문제 성격	친구관계 가족문제	친구관계 인터넷/ 스마트폰 성격 가족문제	친구관계 인터넷/스마트 폰	학업스트레스 친구관계	친구관계

본 연구결과, 청소년은 자신이 지닌 성격적 특성 그 자체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환경에 적응해나가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초등학생 내담자와 중학생 내담자는 거의 모든 성격요인에서 자신의 성격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 낮고, 신경증이 높은 초, 중학생 내담자의 경우 자신의 어려움이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 기인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등학생 내담자는 친화성이 낮은 경우에만 성격을 호소하였는데, 종합해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 내담자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울 때 그 원인을 자신의 성격에 둘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을 가능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상담 시 학생이 자신의 성



격을 잘 이해하고, 성격의 장단점을 인식하여,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단점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중학생 내담자의 경우, 앞서 호소문제에서도 언급했듯이, 모든 성격 요인에서도 인터넷/스마트폰 문제를 호소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및 성실성이 높을수록 가상세계 지향성이 감소하는데, 신경증이 높을수록 현실도피적 수단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은정 외, 2014; 조수연, 안귀여루, 2018). 청소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현실에서 관계나 다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벗어나고자 가상의 세계로 회피하여 빠져들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교 청소년 내담자의 경우, 높은 신경증적 특성을 나타내거나, 혹은 낮은 외향적, 개방적, 친화적 특성이나 성실함을 나타낼 때, 이들은 현실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여러 어려움에서 도피하고자 가상세계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성격적 요인의 특성에 따라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길러줌으로써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외향성이 낮거나 친화성이 낮고, 신경증이 높은 중학생 내담자는 관계문제를 호소하였다. 특히 친화성이 낮은 이들은 가족이나 친구관계 이외에 우울도 함께 호소하였다. 친화성은 충족되지 않은 관계 욕구가 높음을 반영할 수 있고, 신경증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등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도 함께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중학생 내담자의 경우, 충족되지 않은 관계 욕구는 없는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관계적 기술이 부족하진 않은지 살펴보고 적절한 개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방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는 성격을 호소하였다. 개방성은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가정환경이나 교육,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있기에 개방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의 환경을 탐색해봄으로써 성격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생 내담자의 경우, 초·중학생 내담자와 유사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지만, 특히 모든 성격 요인에서 학업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이 낮거나 신경증이 높은 청소년이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였다. 개방성이 낮은 중학생 내담자 또한 성격과 인터넷/스마트폰에 더해 학업스트레스를 1순위로 호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방성이 학업적 실패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경증은 학업적 실패내성과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최효식, 연은모, 2022)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개방성은 지적호기심이 강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실패 상황에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숙달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건설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개방성이 낮게 되면 다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고를 선호하는 반면, 사고유연성이 부족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을 싫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경증이 높은 이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부정적인 정서가 강한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는 학업적인 실패 상황에서 건설적인 모습을 보인다기보다 회피하거나 좌절하기 쉽고, 이는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개방성이 낮거나 신경증이 높은 이들이 학업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IV. 주요 결과에 따른 논의

이울리, 외향성이 낮거나 친화성이 낮은 고등학생 내담자들은 진로탐색을 1순위로 호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성이 낮은 학생일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유정화, 2022)를 지지하는 것으로, 다소 의존적이고 소극적이면서 활동성이나 주도성, 자기주장성이 낮은 외향적 특성은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립적으로 일을 계획해나가야 하는 진로 탐색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오현정, 2018). 한편, 진로결정수준은 개방성과 관련이 높다는 주장이 있다. 개방성은 교육적 혹은 직업적 포부와 관련이 높는데(Brown & Hirshi, 2013), 개방성이 높을수록, 지적 자극의 변화와 다양성을 즐기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잘 선택해 나갈 수 있다. 즉, 일의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의 대안 및 경험에 대해 열린 태도를 의미하는 개방성이 진로결정에 유용한 성격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전미리, 김봉환, 2015). 이는 진로상담 시 이러한 개방성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도 조력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신경증이 높은 경우, 초, 중, 고등학생 내담자 모두 관계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특히 친구관계를 1순위로 호소하였다. 신경증은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높는데, 신경증적 성향이 강한 이들은 긍정적 인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생각을 전환하기보다 회피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더 많을 수 있다. 특히 신경증적 성향이 높은 이들은 자신들의 부정적인 정서나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무언가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대상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 이들은 불안정한 정서적 특성으로 관계에서 잦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이때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을 관계를 통해 보상받으려 하지만,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주위로부터 지지나 격려를 받지 못해 심리적 고독감이나 허기를 느끼게 되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정서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신경증적 성향을 지닌 이들이 스스로의 정서를 조절함으로써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으로 인한 특성을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신경증이 높은 중·고등학생 내담자들 가운데서 불안, 우울, 자존감이 높은 이들의 호소문제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 불안, 우울, 자손감이 높은 중·고등학생 내담자의 호소문제**

구분	중학생 내담자		고등학생 내담자	
	호소문제	1순위	호소문제	1순위
불안	친구관계 인터넷/스마트폰 가족문제	인터넷/스마트폰 친구관계	학업스트레스 성격 친구관계	친구관계
우울	인터넷/스마트폰 가족문제, 성격	인터넷/스마트폰	학업스트레스 가족문제, 성격, 인터넷/스마트폰, 친구관계	친구관계
자손감	인터넷/스마트폰 가족문제 성격	인터넷/스마트폰	학업스트레스 친구관계 성격	친구관계

신경증의 하위요인인 불안, 우울, 자손감이 높은 경우에도 중학생 내담자는 인터넷/스마트폰을, 고등학생 내담자는 친구관계를 1순위로 호소하였다.

불안이 높은 중학생 내담자들은 인터넷/스마트폰과 함께 친구관계를 호소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터넷/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전후를 알 순 없지만, 무엇을 염려하는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울과 자손감이 높은 경우는 모두 인터넷/스마트폰을 호소문제로 제시하고 있어, 현실에서 경험하는 우울함과 무가치함이 가상세계로 빠져들게 하진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불안과 우울·자손감이 높은 고등학생 내담자의 경우 모두 친구관계를 1순위로 호소하였다. 비록 학업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으나, 모두 학업을 1순위로 선택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학업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친구와의 관계 문제일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시기, 친구와의 관계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어떠한 관계적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불안하고 우울하며 스스로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것이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색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돕는 방향으로의 개입을 제공함으로써, 그 효과가 현실적인 어려움인 학업스트레스 해소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안, 우울, 자손감의 특성과 학교급에 따른 문제 유형 역시 패턴화하여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상남도 청소년내담자  
성격유형분석을 통한

# 특성파악 및 효과적 상담개입 연구



# V.

## 결론 및 제언

결론 및 제언 .....	86
참고문헌 .....	88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이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살펴봄으로써 성격특성에 근거한 상담적 개입 방안을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각각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담을 받으러 센터에 내방하였다. 초등학교 내담자는 가족관계와 친구문제, 성격문제를, 중학생 내담자는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고등학교 내담자는 학업 혹은 진로문제를 가지고는 있지만, 가족 및 친구문제로 상담을 받고자 하였다. 이에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문제 패턴을 분류하고 유사한 문제에 대한 양상을 고려한 개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내담자의 성격적 특성은 일반 청소년이 나타내는 성격적 특성과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성격에 따른 성차나 학교급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T점수 분포로 봤을 때,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점수 범위가 낮은 편에, 신경증은 다소 높은 편에 속했다.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은 점수 범위에 더 많은 학생이 포함되었다. 이는 연구대상의 수에서도 기인했을 수 있으나, 상담을 받고자 센터에 내방한 청소년 내담자의 특성을 반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내방하는 청소년을 상담할 시, 자신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여 이를 통해 자신이 세상과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확인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의 개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내담자들은 가족, 친구 등의 관계 문제를 주로 호소하였다. 특히 우울이나 불안, 자존감 등 신경증이 높을수록 관계 문제를 더욱 호소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내담자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고 스스로를 가치있게 여감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도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교육 및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개 관계는 전이되는 것으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학창 시절 또래와의 관계로 전이되고, 이는 이후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계는 인간의 행복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기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호소문제를 순위를 매겨 선택하게 하였지만, 호소문제 간의 관련성과 각 호소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어려움을 알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청소년의 어려움은 단순한 한 가지의 어려움이라기보다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나타나는 개인적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의 지속적인 노출로 인한 가중된 어려움일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조장하거나 원인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청소년 내담자가 자신이 속한 환경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들은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내담자가 관계 문제를 호소한다면, 상담장면에서 상담자와의 라포형성도 어려울 수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 초기 라포형성이 잘 이루어진다면 내담자의 호소문제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정적인 성격 특성을 다루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고위험군 청소년을 자주 접하게 되는 청소년동반자가 청소년의 부정적인 기질을 다루기 위해 내담자와 관계 맺는 역량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보고(황순길 외, 2015)가 있으며, 불안한 아동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촉진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주장(Creed & Kendal, 2005)도 있다. 성실성이 높을수록 상담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외향성이 낮고, 친화성이 낮을수록, 혹은 신경증이 높을수록 라포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많고,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자존감이 높다면, 관계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무엇보다 상담자를 통해 청소년 내담자가 충분히 사랑받고

지지받고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경험을 갖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자는 청소년 내담자와 협력적 관계를 맺으며 조력자로 인식할 수 있게끔 충분히 지지하고 존중하는 반응을 일관되게 해줌과 동시에 내담자의 성격특성을 토대로 이들이 지닌 특성을 지속적으로 탐색해나감으로써 내담자를 위한 개입 방향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의 성격적 요인은 타고난 기질일 수 있으나 가정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거나 부모와의 건강한 의사소통 경험의 부족으로 기인했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내담자들 역시 대부분 가족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에 대한 개입은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접근일 수 있다. 선행연구들도 청소년의 자살, 학교부적응, 대인관계문제, 비행 등이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기에, 특히 위기 청소년의 문제는 개인 중심의 관점이 아닌 가족, 학교, 사회의 총체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황순길 외, 2015). 따라서 청소년 내담자의 개인적 요인을 다뤄줌과 동시에 부모나 가족 등 환경에 개입하는 것도 요구된다.

한편, 개인과 가족의 성격특성이 가족구성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김석선, 길민지, 2016), 개인의 성격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그 개인이 속한 가족구성원의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족구성원이 높은 성실성과 낮은 친화성을 공유하고 있을 때 구성원들에게서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 개인의 성실성은 일을 조직적으로 해내는 성실한 모습으로 성취감을 높여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가족구성원 모두가 높은 성실성을 공유하게 되면 자기규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경향이 두드러져 우울에 취약하게 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가족의 높은 친화성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친화성이 높은 가족구성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서로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돕기 때문에 우울감을 적게 느끼나, 반대로 친화성이 낮은 가족은 서로 냉소적이고 차가우며 가족 간 불화가 있을 수 있어 스트레스와 우울에 취약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가족구성원의 어떠한 상호작용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는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이는 한 개인의 문제는 개인적 성격특성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생활하는 가족환경과 가족구성원의 성격특성 또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인 가족은 개인의 성격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자,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고려한 효과적인 가족 중재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 내담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성격특성과 그에 따른 개입 방안을 살펴보았다. 다만, 연구 표본의 크기가 작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추후 표본의 크기를 증가하고 지역을 확대하여 성격특성과 청소년이 호소하는 문제 간의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호소문제를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하였지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는 아쉬움이 있다. 청소년의 어려움은 단순한 한 가지의 어려움이라기보다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격특성과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은비, 김동일, 김명찬 (2013). 고등학생의 성격요인과 학업지연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성실성과 신경증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1(2), 201-2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지도) 매뉴얼.
- 김봉환 (2019).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김석선, 길민지 (2016). 개인과 가족의 성격특성이 가족 구성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다중모형분석 적용. 보건사회연구, 36(3), 034-052.
- 김수안, 민경환 (2006). 자신의 감정에 압도된 사람들의 성격, 정서특성 및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3), 45-66.
- 김지연, 고흥월, 김영화, 이혜은, 인효연 (2022). 학교상담자를 위한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박일경, 이상민, 최보영, 이지영 (2010). 5요인 성격특성과 학업 소진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81-93.
- 박한샘, 고은영 (2009). 청소년동반자 활동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0(4), 1971-1994.
- 성정혜, 김춘경 (2018). 대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 및 부정적 정서조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인애착의 조절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4(1), 73-91.
- 송연주, 하문선 (2021). 대학생의 신경증과 우울 간 관계에서 정서조절과 관계중독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2), 1-29.
- 안창규, 채준호 (1997). NEO-PI-R의 한국표준화를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443-473.
- 여성가족부 (2013).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상담 매뉴얼 개발연구.
- 연은모, 최효식 (2022). 청소년의 성격, 양육태도, 자기통제, 게임 과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6), 1-13.
- 오윤선, 김미숙 (2019). 청소년심리및상담, 경기도: 양성원.
- 오현정 (2008). 성격 5요인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이소래, 송수민 (2000). 청소년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유정화 (2022).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성격5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취업진로연구, 12(1), 75-101.
- 이봉주, 김동일, 정익중, 유순덕 (2008). 위기청소년개념정립 및 통계화 방안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선종 (2013).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요인 탐색 및 모형검증: 성격과 이용 동기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지 (2016). Big 5 성격요인에 따른 청소년 성격특성의 발달적 변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리, 김봉환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성격 5요인과 인지·행동적 변인의 영향 -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 진로교육연구, 28(4), 41-57.
- 전해경 (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성격특성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정, 김원희, 이동형 (2014) 고등학생의 성격 5요인과 SNS 이용동기 간의 관계. 교육혁신연구, 24, 17-31.
- 조수연, 안귀여루 (2018) 중학생의 NEO 청소년 성격특성과 스마트폰 중독 취약성의 관계 : 문제 중심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4), 55-75.
- 조영란(2006). 5요인 성격특성과 대인관계 성향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용락, 오미애, 이상민, 김종우, 강원섭(2019). 우울증 환자에서 자살 증상 유무에 따른 성격 특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정신신체의학, 27(2), 164-172.
- 최은실 (2011). 초등학생의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3), 105-128.
- 최효식, 연은모 (202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 성격 5요인, 학업적 실패내성, 학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2(20), 479-493.
- 추보경 (2019). 고등학생의 자살사고와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 신경증 성향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지도) 매뉴얼.
- 한윤영 (2003). 5요인 성격특성과 자기조절학습전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매향 (2008). 학업상담, 서울:학지사.
- 황순길, 손재환, 전연진, 양민정 (2015).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청소년동반자 내담자의 문제 계층별 상담요구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3(1), 273-294.
- Allport, G. W. (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 Cole, P. M., Dennis, T. A., Smith-Simon, K. E., & Cohen, L. H.(2009).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strategy understanding: Relations with emotion socialization child self-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8, 324-352.
- Creed, T. A., & Kendall, P. C. (2005). Therapist alliance-building behavior within a cognitive-behavior treatment for anxiety in you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3), 498-505.
- John, O. P. & Gross, J. J.(2004). Healthy and unhealthy emotion regulation: Personality processes, individual differences, and life span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72, 1304-1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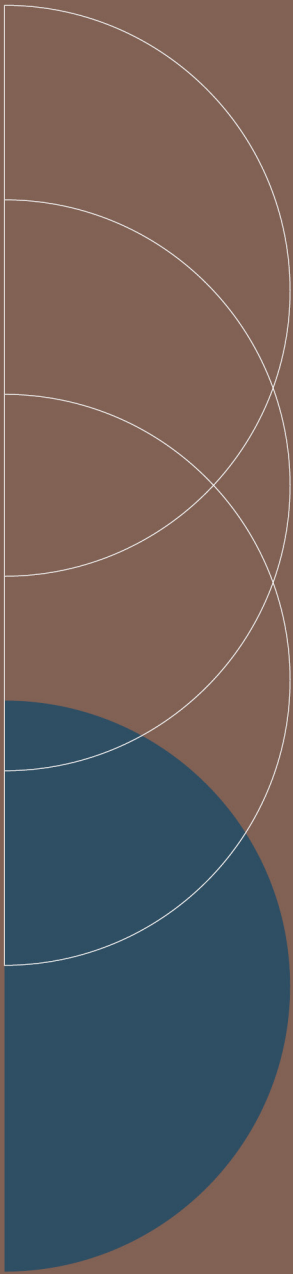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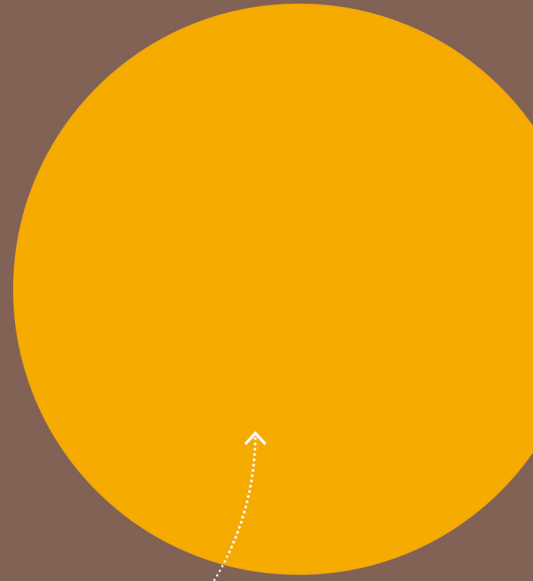


## 참고문헌

- Jones, S. E., Miller, J. D., & Lynam, D. R. (2011). Personality, antisocial behavior, and aggression: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9(4), 329-337.
- Tov, W., Nai, Z. L., & Lee, H. W. (2016). Extraversion and agreeableness: Divergent routes to daily satisfaction with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84(1), 121-134.
- Vazsonyi, A. T., Ksinan, A., Mikuška, J., & Jiskrova, G. (2015). The big five and adolescent adjustment: An empirical test across six cultur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3, 234-244.
- Abood, M. H., Alharbi, B. H., Mhaidat, F., & Gazo, A.M.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dapt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Jordan.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er Education*, 9(3), 120-124.
- Arpacı, I., & Ünver, T. K. (2020). Moderating role of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smartphone addiction. *Psychiatric Quarterly*, 91, 577-585.
- Bolger, N., & Schilling, E. A. (1991). Personality and the problems of everyday life: The role of neuroticism in exposure and reactivity to daily stressors. *Journal of Personality*, 59, 355-386.
- Borroni, S., Somma, A., Andershed, H., Maffei, C., & Fossati, A. (2014). Psychopathy dimensions, big five traits, and dispositional aggression in adolescence: Issues of gender consisten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6, 199-203.
- Brown, S. D., & Hirschi, A. (2013). Personality, career development, and occupational attainment.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2nd ed., pp. 299-328). New York, NY: Wiley.
- Costa Jr, P. T., & McCrae, R. R. (1992).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its relevance to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6(4), 343-359.
- DeNeve, K. M., & Cooper, H. (1998). The happy personality: A meta-analysis of 137 personality trait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24, 197-229.
- Gao, L., Zhai, S., Xie, H., Liu, Q., Niu, G., & Zhou, Z. (2020).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problematic mobile phone use: A meta-analytic review. *Current Psychology: A Journal for Diverse Perspectives on Diverse Psychological Issues*.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007/s12144-020-00817-x>
- Graham, L. T., & Gosling, S. D. (2013). Personality profiles associated with different motivations for playing world of Warcraft.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6(3), 189-193.
- Lampropoulou, A. (2018). Personality, school, and family: What is their role in adolescents'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Adolescence*, 67, 12-21.

- Mammadov, S. (2022).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academic performance: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90(2), 222-255.
- O'Connor, M. C., & Paunonen, S. V. (2007). Big Five personality predictors of post-secondary academic perform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5), 971-990.
- Stajkovic, A. D., Bandura, A., Locke, E. A., Lee, D., & Sergent, K. (2018). Test of three conceptual models of influence of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self-efficacy on academic performance: A meta-analytic path-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0, 238-245.
- Tian, Y., Zhao, Y., Lv, F., Qin, N., & Chen, P. (2021). Associations among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maladaptive cognitions, and internet addiction across three time measurements in 3 month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rontiers in psychology*, 12, 654-825.
- Vashisht, S., Kaushal, P., & Vashisht, R. (2021). Emotional intelligence, personality variables and career adaptabilit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Vision*, 1-13.
- Vecchione, M., Alessandri, G., Barbaranelli, C., & Caprara, G. (2012). Gender differences in the big five personality development: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from late adolescence to emerging adultho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 740-746.
- Weber, M., & Huebner, E. S. (2015). Early adolescents' personality and life satisfaction: A closer look at global vs. domain-specific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3, 31-36.
- Zhang, D., Zhou, Z., Gu, C., Lei, Y., & Fan, C. (2018). Family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are associated with the social creativit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mediating role of personality trai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9), 2999-3007.
- Zhang, M., Han, J., Shi, J., Ding, H., Wang, K., Kang, C., & Gong, J. (2018). Personality traits as possible media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nese adolescent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03, 150-155.
- Klimstra, T. A., Hale, W.W. III, Raaijmakers, Q. A. W., Branje, S. J. T., & Meeus, W. H. J. (2009). Maturation of Personality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4), 898-912.

경상남도 청소년내담자  
성격유형분석을 통한 특성파악  
및 효과적 상담개입 연구



**부록.**  
**연구참여**  
**동의서**

#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구참여동의서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경상남도 지원을 받아 설치 운영하는 공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 내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성격유형을 분석하고 특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고자 실시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여자 <input type="checkbox"/> 남자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재학여부	<input type="checkbox"/> 재학중 <input type="checkbox"/> 학교밖
학년	학년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계속 다녔을 경우 학력 기재)				
연락처	본인				
	보호자 (14세 미만)		(관계: )		
* 어떠한 내용으로 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나요? (괄호에 3순위까지 작성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가족( )	<input type="checkbox"/> 가출( )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 )	<input type="checkbox"/> 도박( )		
<input type="checkbox"/> 음주( )	<input type="checkbox"/> 흡연( )	<input type="checkbox"/> 학업스트레스( )	<input type="checkbox"/> 학교생활부적응( )		
<input type="checkbox"/> 등교거부( )	<input type="checkbox"/> 진로탐색( )	<input type="checkbox"/> 성격( )	<input type="checkbox"/> 친구관계( )		
<input type="checkbox"/> 따돌림( )	<input type="checkbox"/> 이성교제( )	<input type="checkbox"/> 주의산만/과잉행동( )	<input type="checkbox"/> 우울/위축( )		
<input type="checkbox"/> 자살( )	<input type="checkbox"/> 충동(분노)조절( )	<input type="checkbox"/> 반항성/품행성( )	<input type="checkbox"/> 성지식 부족( )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	<input type="checkbox"/> 성충동/성욕구( )	<input type="checkbox"/> 인터넷/스마트폰( )	<input type="checkbox"/> 약물 오남용(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 가. 수집항목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의 고유식별정보인 성명, 나이, 연락처, 호소문제 관련 사항 등
- 이용목적: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내담자 성격유형분석을 통한 특성파악 및 효과적 상담개입」 연구 기초자료 활용

동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 나. 연구참여동의

- 본인은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구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귀하

경상남도 청소년내담자  
성격유형분석을 통한

## 특성파악 및 효과적 상담개입 연구

---

**발간번호** GYSA-22-021

**인 쇄** 2022년 12월

**발 행** 2022년 12월

**발 행 인** 홍순경

**편 집 인** 조아영

**발 행 처**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5113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59 (청소년관 3, 4층)  
<https://gnyouth.net/>  
TEL. 055)711-1388 / FAX. 055)711-1398

사전 승인없이 본 자료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경상남도 청소년내담자  
성격유형분석을 통한  
**특성파악 및 효과적인  
상담개입 연구**

2022. 12

